

## 국회의원님들! 제발 ‘일’ 좀 하세요

박근혜 정부가 ‘연소득 4000만~7000만원’ 봉급생활자들에게 1년 평균 16만원 세금을 추가로 안기려던 ‘2013 세법개정안’이 대통령 스스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후퇴선언을 해 단숨에 철회되고 말았다. 이것이 관철되었다면 5년간 8조원을 더 걷을 수 있었다고 한다. 새 정부 경제팀이 몇 개월간 정성들여 만들어 박근혜표 복지 135조원의 불과 6%를 마련하려던 시도가 첫발부터 이렇게 좌절된 것이다.

### 공약복지 이행여부 따질때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살림형편이 어떤 ‘망조(亡兆)’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정부는 아마 앞으로 한 푼 세금도 더 걷기 어려울 것이다. 복지가 늘어나면 당연히 세율을 올려 세수를 늘려야한다. 그러나 받는 것에만 중독된 국민은 이처럼 아무것도 내기 싫은 타락한 국민이 됐고, 여야 정치집단은 이런 국민행태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한국경제의 세수능력은 금년 상반기 10조원 이상의 세수가 될 견지도록 결판이 나 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 기업법인세, 월급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그 어느 것도 앞으로 이보다 나아지리라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빠진 이 재정의 수렁을 이제 어찌할 것인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지금 국회는 대통령 공약복지를 그대로 이행할 것인지, 축소 조정할 것인지,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라도 대기업과 부자에게서 전부 거두어낼 것인지 토론하고 싸우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어야 한다.

한국경제는 지금 대한민국 60여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단의 시기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50년간 압축 성장을 한만큼 빠르게 우리는 압축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국민은 초고속으로 노령화해서 일하는 인구는 급감하고 부양할 인구가 급증한다. 서구사회가 수백년간 이루어낸 부의 기반, 중산층, 국민수준 등이 우리에게서 그저 단숨에 급조된 것이라 모두 살얼음판이다. 국민저축률과 투자율은 해마다 감소해 경제를 지탱할 힘이 쇠락하고, 제조업위주로 구축된 성장 동력은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다. 부동산 거품에 얽혀 이루어진 중산층은 급격히 허물어지고 자유시장경제 기반, 기업가정신, 국민의 책임의식도 쇠퇴하는 중이다. 이를 근본부터 혁신해 신 르네상스 경제시대의 창조에 다시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이 참에 국가가 모두 거두어 일자리와 의식주를 분배해주는 가부장 사회주의 국가로 이행할 것인가. 대의(代議)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지금 국회에 틀어박혀 이 국가민족의 대사에 머리 터지게 고민하고 활동해야 한다.

### 촛불세력 동원 재야투쟁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어떤 꼴인가? 한 달 넘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이란 것을 국정조사 한다고 소동을 벌였다. 127명 야당 국회의원들은 서울시청 광장에 천막을 치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정치적 인터넷 댓글을 달게 해 대선결과가 달라졌다며 촛불세력을 총 동원해 재야투쟁을 하고 있다.

### 특별기고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경제학

### 세수부족으로

### 나라재정

### 수렁에 빠질 위기에

### ‘국가정보원 댓글’ 싸고

### 한 달넘게 소동만 벌여...

### 국정조사 한답시고

### 호통치며

### ‘甲중의 甲’ 위세 과시

### 私心 가득한 행태

### 언제 그칠지...

그러나 이 사건의 실상을 보면 쥐 한 마리가 태산을 무너뜨렸다는 말이 따로 없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9명이 3개월간 총 67개의 정치적 댓글을 방문자 순위 231위 ‘오늘의 유머’, 73위 ‘일간베스트’ 등에 게시한 것을 색출해냈다. ‘연평도 포격 잊었는가?’ ‘북방한계선(NLL) 사수’ 따위의 북한 관련 글들이 문제됐으며, 이 중 3건이 문제인을 거론해 비판했고 3건이 박근혜를 옹호했다고 한다.

과연 이것이 국회가 열일 체제 놓고 조사할 국가조직의 선거범죄인가, 오늘날 인터넷에는 하루 수천수만의 원색적 정치 댓글이 올라오는데 이런 67개 댓글에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낚였겠는가. 국회의원들의 국정 포탈문제를 따지기 전에 나라꼴을 백치(白痴)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창피한 일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같은 ‘민주주의 시대 귀족’은 아마 세계에 없을 것이다.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은 전용차가 없고 국가가 대중교통비만 대준다. 개인 보좌관은 없으며 소속 정당 비서의 도움을 받아 의정활동을 한다. 이들은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므로 특권을 요구함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른바 ‘통합사회’인 유럽 대부분 국가 국회의원들은 이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소득이 우리의 2.5배인 스웨덴(월 5,700크로나, 약 1060만원)보다 훨씬 많은 1억4500여만원의 연봉에 1억 원이 넘는 각종 수당과 지원금을 받는다. 항공기 1등석 무료, 골프장 회원 대우, 불체포 등 특권은 무려 2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의원 한 명의 활동을 위해 4~7급 공무원 6명, 9급 기능직 1명과 인턴 2명을 국비로 둔다.

### 준법정신 보통국민보다 낮아

국민이 이 엄청난 대우와 지원으로 국회의원을 모시는 것은 그만큼 국민대표로서 의원의 존재와 역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준법, 봉공(奉公) 및 직업의식은 보통 국민보다 훨씬 낮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회기 중 당파와 선거구 일로 노상 의석을 비우고,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는 건성으로 해왔다. 제 인척과 지인을 보좌관으로 쓰고 때때로 이들을 자기 선거구 관리에 부려왔다. 이들이 가장 잘 하는 일은 장관, 대기업 회장, 기타 사회 명사들을 무더기로 불러내 호통을 쳐대며 자신들이 모든 국민의 ‘갑(甲)중의 갑’임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모든 공공기관이 에어컨 승강기 전등 등을 다 꺼대던 지난 절전소동 때도 국회의원들이 계산 여의도 의원회관의 에어컨은 썩 썩 돌아갔다. 한 사회의 양식(良識)은 모든 시민이 본받는 그 사회 지도층의 의식과 행동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국민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소인배라면 온 국민은 결국 그 이상의 소인배가 된다. 지금처럼 국가사회가 위기에 처한 때 국회를 때 지어 뛰쳐나와 사심(私心)에 그득 찬 국정원댓글 선동이나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이다. 이들이 변하지 않는 한 결국 국가는 국민에게 종내 한 푼의 세금이나 준법, 공민(公民)으로서의 책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4]

## ‘우리사회 언론 난립과 그 폐해...’ 대한언론인회 대토론회 개최 9월 10일 프레스센터서

대한언론인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 사회 언론 난립과 그 폐해,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갖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회우 여러분에게는 이 기사로 초청장을 대신 합니다.

○-일 시 : 2013년 9월 10일(화요일) 오후 2시30분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제발표 : 임영호(언론학·부산대 교수)  
○-토 론 자 : 홍정기(문화일보 논설위원)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

전희경(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정책팀장)  
한중광(한림대 객원교수·전 KBS 인터넷 사장)  
김영환(본보 편집위원·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사 회 : 문명호(문화주필·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 전직 대통령 비자금 시비 끝낼 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압수수색 장면을 지켜보는 소감이 참담하다. 전직 대통령 가족들이 왜 끝까지 재산은닉이나 탈세혐의를 받아야만 하는가. 본인 스스로 “면목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나라와 국민들도 대외적인 면목이 없는 노릇이다.

## ‘비자금 바꿔치기’ 등 새 혐의 속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추징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거나 자력으로 해결할 돈이 없거나 두 가지 중 한가지일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이번에는 검찰이 진실을 밝혀내어 사태를 완결할 마지막 기회이다. 여든이 넘는 전직 대통령이 이미 백담사에 유배됐다가 감옥 다녀오고 자택과 자녀들 재산에 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거쳤다. 그런데도 ‘포괄적 뇌물’ 미납금이 1,672억원으로 또다시 검찰수사를 받고 있으니 무슨 까닭인가. 검찰이 연일 새로운 혐의를 들춰내는 것을 보면 마치 전직 대통령 일가와와 은닉, 도피와의 전쟁 끝이다.

‘처남 이창석의 오산땅 매각’, ‘땅 판돈 분배계획서’, ‘비자금 바꿔치기’, ‘차명계좌 3만개 추정’ 등 부끄러운 혐의 속출에다 검찰은 ‘전액환수 자신감’, ‘자진납부해도 수사’ 방침을 밝히고 있으니 갈수록 태산 아니냐는 느낌이다.

전직 대통령은 면목 없어 말 못하지만 민정기 비서관이 대신하여 해명, 반박성 ‘보도참고 자료’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 대통령 부부의 근황소개 부문에서 “세상과 싸울 생각 없고 힘도 없다”고 말한 탄식조의 심경이 귀에 닿는다. 또 “권력 놓은 지 25년간 ‘힘든 세월’은 유배, 옥고, 박해, 비난, 능멸이었다”, “가족들도 지치고 탈진했다, 전 대통령도 경호팀 철수나 국립묘지 안장여부 등 ‘육신의 흔적’에 관해 이미 초탈했다”고 전했다.

아마도 솔직한 심정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르기까지 무골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왜 지금까지 ‘유구무언’으로만 항변해 오다가 다시 수사를 자초했는지 궁금하고 답답한 노릇이다.

민 비서관의 보도참고자료가 포괄적 뇌물 판결에 대해서는 1980년대의 정치상황으로 해명을 대신했다. 남아있는 미납금에 대해서는 ‘용처는 불명’이지만 “이미 다 날려버려 직접 손에 가진 것이 없다”는 요지로 대신했다. 자녀와 처남의 부동산 재산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인 60~70년대에 장인의 손으로 조성됐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대로라면 자녀들이 부동산 자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축적하는 과정에 비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 부친의 권력을 이용했는지가 이번 수사의 초점이다. 실제로 최근의 수사결과로 보면 비자금 흔적과 탈세혐의가 포착되고 있으니 사법처리와 환수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는 어떤 항변이나 이의를 제기할 처지가 못



배병휴

·본회 회우  
·전 매일경제 주필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 전두환 특별법

## 제정 취지로 보면

## 정치적으로 덮어둔

## 비자금 혐의들도

## 철저히 수사하여

## 엄정하게 처리해야

## 이번 사태의

## 완전 종결이라고

## 볼 수 있다.

된다고 보기에 탈진, 초탈의 심정으로 사태의 종결을 희망할 것으로 믿는다.

## 또 다른 전직 비자금은 덮어둘 것인가

검찰이 ‘전두환법’ 제정으로 재수사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들은 왜 미납금 추징에 나서지 않았을까. 5공권력이 종식된 후 25년간 정치적 반대입장에 섰던 민주화 정권들이 이를 눈감고 지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행여 5공 측과 정치적 흥정이 있었거나 비자금 거래와 연루된 혐의는 없었을까.

‘전두환법’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으로 추징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제3자 편에 은닉한 재산도 추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소문이 살아 있는 다른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혐의는 계속 덮어두고 가겠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단 5·6공이 아니라도 보형성, 뇌물성 정치자금을 바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차떼기식’의 거액을 밤중에 전달하는 과정에 고약한 썩은 돈 냄새를 맡았다는 증언도 보도됐었다.

특히 15대 대선 때는 한나라당이 김대중 후보의 20억+a를 수사토록 촉구하자 김영삼 대통령이 ‘호남민관 우려’를 이유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유보를 지시했다. 당시 DJ측은 YS에게 ‘퇴임 후 안전보장’을 약속하며 수사유보를 요청했었다. 더구나 DJ비자금은 미국에 조단위 규모로 도피시켰다는 혐의가 제기됐지만 검찰수사에 관한 보도는 없었다.

지난 2006년 6월, ‘대한민국사랑 호남인모임’과 ‘안보와 경제살리기 국민운동’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DJ비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었다. 이보다 앞서 뉴욕의 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이 DJ비자금을 담은 “007가방을 수없이 날랐다”는 증언과 제보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족 관련 비자금 혐의도 검찰수사 중에 투신자살로 덮어두고 면죄처리한 사실이 있지 않는가.

전두환특별법 제정취지로 보면 이처럼 정치적으로 덮어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혐의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해야 이번 사태의 완전 종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80년대 비자금 사태의 법적처리가 끝난 뒤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도 전직의 기본예우와 원초적인 인간존중은 회복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

5공역사를 부인하고 싶은 정치적 반대 입장에서도 그 시대를 함께한 역사를 지울 방도가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권력남용과 부패의 상징으로 매도되지만 그 뒤의 민주화 대통령들도 모두 ‘80년대의 정치동문’ 사이가 아닌가. 두 분은 이미 고인이 되고 두 분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니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문화’를 정립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일이다. 다만 이보다 앞서 전두환비자금사건의 사법적, 정치적 완결이 선행돼야 할 것은 물론이다. [필자]

# 増稅문제 클린턴의 용기를 배워라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4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원칙과 믿음을 바탕으로 탄생한 박근혜 정권의 전도가 결코 순탄치 못할 것을 점치게하고 특히 박대통령의 리더십과 통치 역량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

조세는 정권의 존립을 좌우하는 가장 민감한 정치 사안이다. 특히 증세는 자칫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켜 정권을 위협한 사례를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수 없이 보아 왔다. 그런데도 이번 세법개정안은 일반적인 경제문제인양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도해 당정의 충분한 협의와

협의 없이 발표 한 것과 더 나아가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게 했다.

1993년 1월, 미국 제4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민주당의 클린턴은 미국뿐 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모아진 취임연설에서 ‘강한 미국의 부활’을 위해 ‘증세’를 선언했다. 정치가로서 정치생명을 거는 엄청난 리스크가



박진서

·본회 논설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능하다. 이것은 희생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위해, 우리들 가족을 위해, 미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

파르는 증세선언은 배수진을 친 클린턴의 만용이라고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 까지 반발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결국 ‘강한 미국의 부활’을 위해 미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증세는 결코 쉽지 않다. 여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른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희생을 받아 들인다면 가

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당연히 반발이 예상되었지만 미국 국민과 유권자들은 클린턴의 ‘희생’이란 말에 감동했다. 지금까지 느껴 보지 못했던 ‘희생’이란 한마디가 새삼스럽게 굳게 닫혀진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전 미국에 충격을 불러 일으켰고 특히 항상 반정부적 입장이었던 지식층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클린턴은 정말 큰일을 낼 것 같다.”고... 먼저 월가에서 반응했다. 곧 이어 주가가 뛰기 시작해 침체에 빠졌던 주식시장이 활기를 찾았다.

클린턴의 용기 있는 결단은 이렇게 증세를 통해 악화일로에 있던 재정적자의 건전화와 산업 인프라정비에 착수해

3면으로 이어집니다.

# 北 전술 전환 ... 근본적 변화 조짐 없다

최근 북한의 대남 행보를 살펴보면 언제 남북간 긴장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다. 북한은 지난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고, 19일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했다.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동아시아 축구대회에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이 참가했고, 8월 21일 유엔 유스리더십프로그램(YLP) 참석을 위해 북한 대표단 4명이 광주를 방문했다. 23일부터 판문점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고조되어 왔던 남북간 긴장이 일순간에 해소되고 화해협력 시대가 도래된 듯한 분위기다.

개성공단 재개 합의 이후 우리 사회에는 북한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존재한다. 첫째는 김정은 체제가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으로 인해 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몰렸고 이제 변화해 나갈 것이라는 판단이고, 둘째는 북한의 대화제외는 한미중 대북 공조를 차단하고 한국과 미국을 이간하는 동시에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치밀한 계산이며 김정은 체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두달 전까지 만해도 전쟁을 불사할 것 같았던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고 있으니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는 여전히 폐쇄체제를 유지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대해 도발위험을 지속하고 있으니 변화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면,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첫째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이 변화하는 것이며, 이것은 전술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는 일순간에 현 체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것이며, 이것은 급변이라고 정의된다. 셋째는 북한 정치체제가 개혁개방을 지향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며, 이것을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변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북한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의 ‘변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책의 혼란이 초래되는 것이다.

서울 불바다를 언급하면서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던 북한이 남북대화를 시도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위에서 말한 첫 번째 경우, 즉 전술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만 바뀌었을 뿐이지 북한 체제의 근본은 바뀌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과 유엔안보리의 지속적인 제재에 못이겨 대화를 추진한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중간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으며, 미중,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중 3국 공조가 구체화되어가는 분위기이다. 북한으로서는 대북 3국 공조를 사전에 차단하고 한미 및 한중을 이간시키는 동시에 한국 내의 남남갈등을 고조시킬 목적으로 남북대화를 제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에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 요소가 은연중 확산되어 과거 계획경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생겨났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2백만명이 넘었고, 평양에 샤넬과 까르띠에 등 명품관이 생겼다고 한다.

## 특별기고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  
·국제정치학박사

## 대북 3국공조 차단

## 한-미, 한-중 이간

## 남남갈등 조장

## 치밀한 계산 깔려

## 대화모드를

## 변화로 유도할 수 있는

## 기회로 활용을...

그러나 이것을 북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한 순진한 판단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북한 정치체제의 구조를 살펴보면 변화가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북한 정치체제의 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있는가? 불행히도 그 대답은 ‘아니오’이다. 북한은 여전히 김씨 왕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선노동당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군을 앞세워 통치하는 체제이다. 평양시민과 일부 당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권은 찾아보기 힘들다. 시장경제적 요소가 일부 도입되기는 했지만 사회주의적 요소를 개혁하는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

다른 한편, 과거에 비해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군을 앞세우고 있으며, 핵개발과 군사력 증강에 국가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서해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새로 건설했고, 사정거리 200km에 달하는 방사포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도의 기동성을 가지고 지대공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탱크 900여대를 배치하고 있다. 이들 무기체계가 기습용이며 수도권 타격용이자 전선돌파용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다. 장거리타격 수단을 확보하려는 우리의 차세대전투기 사업과는 전혀 다른 목적이다. ‘안보가 중요하다’는 우리 대통령의 언급을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적반하장식 생떼를 쓰는 것만 보아도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규범과 관습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낙인찍혀 있다. 한마디로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는 없으며,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고, 김정은이 관람한 공연에 마키마우스가 등장했고, 록키영화의 한 장면이 상영되었다고 해서 북한이 핵과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했다거나 선군정치를 버리고 개혁개방을 선택할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마키마우스와 록키가 북한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영호의 숙청이 개혁개방의 신호탄이라고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다. 북한체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있느냐를 보아야 한다. 김정은이 당 간부들에게 ‘인민들 먹는 문제에 신경쓰라’고 지시한 것을 개혁개방의 의미로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

북한이 김씨왕조를 폐기하고 낡은 주체사상과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하는 동시에 민주화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개혁과 개방을 지향할 때 비로소 북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고 해서 비판할 필요는 없다. 북한의 대화모드 전환을 북한 변화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의 대화제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비핵화, 도발 불용, 도발시 응징, 규범 순응시 지원’이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

### 2면에서 이어집니다.

세계 제일의 자리를 되찾는 상승기류를 타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젊고 결단력 있는 클린턴 대통령 탄생의 배경에는 ‘강한 미국의 부활’을 이끈 ‘바이블’이라고 평가된 유명한 ‘영(Young)리포트’와 ‘John. A. Young’의 존재가 컸다.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식부터 거슬러 올라 간 7년 전인 1985년 2월, 당시 휴렛팩커드 회장인 존.A.영을 위원장으로 순수 민간기업 CEO와 금융인 40명으로 구성된 대통령산업경쟁력위원회(PCIC)가 완성한 32항목(민성적 재정적자의 건전화, 민간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개혁, 노동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교육 등)의 발본적인 미국경제

지구개혁을 제기한 ‘영리포트’가 세상에 나오자 미국 경제력 쇠퇴의 현실을 직시한 효과적인 권고안이라고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의뢰했던 레이건공화당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레이건대통령의 낙관주의적 사상과 시카고학과(시장경제주의자)가 차지한 공화당 정권의 정치적 이해가 상충하여 폐기되고 말았다.

자칫 사장될 뻔한 영리포트는 91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국 아칸소 주지사로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된 클린턴의 해안에 의해 꽃 피우게 된다. 당시 부시대통령의 지지율은 70% 까지 올라가 그의 재선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92년 부시정부는 3,20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 실업률이 10%를 넘어 경제정책

실패라는 역풍을 안게 되자 클린턴은 영리포트의 ‘변혁’을 내 걸고 자기가 몸 담고 있는 민주당의 ‘마구 뿌려대기식 복지정책’까지 손보겠다는 참신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설득,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클린턴은 선거기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두 번이나 캘리포니아의 HP본사를 찾아 영회장의 조언을 구했고 당선 직후에도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경청하는 등 민감하고 누구도 손대기 싫어했던 경제정책은 직접 쟁겼다.

복지지상주의자로 알려진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도 “기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말이 안 된다. 세금을 걷는 것 못지않게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그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세제개혁안은

국민을 설득할 분명한 청사진이 없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국민 설득이 먼저다.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리포트 같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권고안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대통령의 의중에만 맞추려는 관료와 교수들을 배제하고 순수 기업인들이 만든 권고안을 기대해볼 만하다.

또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민주국가 가운데 선거공약을 완전하게 실천한 통치자는 한명도 없다. 그리고 지구상에 복지제도가 성공한 국가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정치는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따라서 원칙도 변화에 맞춘 유연성이 필요하다. 자칫 원칙이 아집으로 비취 질까 우려된다. [국문]

# 아! 안타까운 한국일보여.

## ■ 태평로에서 ■



정진석

·본회 명예회우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언론사

한국일보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내막을 나는 모른다. 복잡한 갈등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국외자 입장에서 시비를 가리고 무어라 훈수를 둘 입장도 아니다. 장재구 회장이 어떤 인물인지 만나본 적도 없다. 하지만 흰색과 초록색이 대각선으로 그려진 사기(社旗)를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민원기자들이 사건 현장을 누비고, 당대의 논객과 다양한 필진이 모여들었던 60년 역사 언론기업의 사주가 구속되는 장면을 보는 마음은 안타깝고 착잡하다. 신문 경영인이 수감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다. 논조나 특정 기사가 권력의 미움을 사서 사장이 수감된다면 사원들은 한 마음이 되어 뜨거운 성원을 보냈을 것이다. 언론자유 수호를 열망하는 사회 여론이 공분(公憤)하여 들끓게 된다. 탄압에 저항한 발행인은 동정을 받는다. 한국일보 사태는 다르다. 사원들이 사주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한 부끄러운 사건이다.

### 당당했던 메이저 신문

한국일보는 우리나라 4대 신문의 하나로 명성을 날렸다. 내가 〈한국 현대 언론사론〉(1985)을 출간하던 때에는 오늘날 조 중 동으로 일컫는 3대 메이저 신문과 같은 반열에 당당히 서 있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장기영이라는 결출한 창업자의 정열과 추진력,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1950년대 언론계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성장한 신문이 한국일보다. 장기영은 구속된 장재구 회장의 선친이다. 그는 여느 신문사 사장과는 다른 경영인이었다. 자신의 집과 사장실에서 신문의 구독신청을 받고, 사장이 배달 사고를 접수하여 직접 독자를 찾아가서 처리했다.

한국일보는 1954년 6월 9일, 6·25전쟁이 끝난 지 1년이 되지 않은 때에 창간되었다. 내년이면 60주년이다. 장기영은 ‘신문은 누구도 이용할 수 없다’는 모토를 내걸고 어려운 여건을 헤치며 대 언론기업으로 키워나갔다. 한국일보를 비롯하여 코리아 타임스(1950.11.1 창간), 소년한국(1960.7.17), 서울경제신문(1960.8.1), 주간한국(1964.9.24), 주간여성(1969.1.1), 일간스포츠(1969.9.26)와 같은 자매지를 거느린 최대의 언론기업을 일구었다. “세계사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로부터 시작되고 우리나라의 주

간지사(史)는 〈주간한국〉으로부터 시작된다”(김성우, 〈돌아가는 배〉 170쪽)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닐 정도로 한국일보 그룹의 자매지들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 언론의 성장에 자극제가 되어 크게 기여했다. 언론인 공채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제도로 정착시켜 유능한 인재를 공급하는 ‘언론 사관학교’가 한국일보였다. 창간 30주년을 넘긴 1984년 상반기까지 42기 540여명의 견습기사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는 한국일보를 떠나 다른 언론사에서 중책을 맡거나 정계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로 전직하여 활동한 사람도 많았다.(정진석, 〈한국 현대언론사론〉 457쪽)

### 라이벌신문 떨게 했던 위력

라이벌 조간신문이었던 조선일보 방우영 사장은 이렇게 썼다. “나는 신문사 경영에 뛰어든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조선일보보다 한국일보를 먼저 손에 들었다. 한국일보가 특종 하면 하루 종일 우울했고, 우리 신문이 앞서면 기분 좋게 아침밥을 먹었다. 그런 세월이 10년 이상 갔다.”(방우영,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287쪽) 그랬던 한국일보가 어느 때부터인지 ‘4대 신문’에서 탈락하고, ‘메이저 신문’은 조 중 동 세 신문만 남았다.

신문 산업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종이신문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변신은 처절하다. 2000년대에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신문들은 전통적인 대판(브로드 슈트)을 버리고 베를리너(Berliner), 또는 미디(Mid)라는 이름으로 과감하게 판형을 줄였다. 영국에서는 〈가디언〉(1821.5.5 창간)이 2005년 9월부터 판형을 바꾸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일요신문 〈옵서버〉(1791.12.4)도 2006년 1월 8일부터 뒤를 이었다. 대영제국과 역사를 함께한 권위지 〈더 타임스〉(1785.1.1)도 219년 간 이어온 대판 발행을 접고 2004년에는 이른바 ‘콤팩트 사이즈’로 축소했다. 전파매체의 발달, 무가지(無價紙), 인터넷을 비롯한 혁신적인 통신수단 확산이 몰고 온 언론 환경의 변화가 전통적인 종이신문의 존립 기반과 입지를 크게 위협했기 때문이다.

나는 장기영 사장으로부터 그의 언론관을 들을 기회가 세 차례 있었다. 기

자협회보와 편집인협회보를 편집하던 1969년이였다. 기자협회보에 실린 장기영과의 좌담(1969.1.10), 장기영-선우휘 대담(편집인협회보, 1969.4.15), 장기영의 글(1969.10.19 ‘문책 재 기자’)은 모두 내가 쓴 글이다. 장기영이 NYT를 방문했을 때에 안내하던 직원에게 들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independent, fair, objective, honest”가 NYT의 모토라는 것이었다. 언론인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영이 시종일관 그런 자세로 신문을 만들었는지에 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이상으로 삼은 언론 경영철학의 일단을 토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본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다. 장기영 사장은 저 세상으로 갔고, NYT는 경영주가 바뀌는 상황에 처했다. 그래도 NYT는 세계적인 신문이다.

### 제호만으로도 엄청난 자산

‘25시의 사나이’, ‘왕초’, ‘대기자’라는 애칭과 여러 별명을 지닌 장기영이 키운 신문이 아들 대에 와서 수성(守成)에 실패하여 최대의 위기를 맞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 기업의 흥망을 결정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은 사주에게 있다. 이는 고금의 진리다.

한국일보는 제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자산이다. 1950년대의 그 신선한 지면을 읽던 독자들은 아직도 이 신문에 강한 애착과 향수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경제개발과 해외진출이 활발하던 1960년대는 한국일보 그룹의 여러 매체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희망과 위로와 오락을 제공했다. 1970년대의 언론자유 수호와 언론노조 운동에도 한국일보 기자들은 앞서 싸웠다. 한국일보는 막강한 전·현직 인적 자원이 있다. 한국일보 출신이거나 인연을 지닌 많은 언론인들이 조 중 동과 방송 등 여러 매체와 정·관계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한국일보의 새로운 출발과 명예회복에 숨은 후원자일 수 있다. 역사를 기록한 지면 콘텐츠도 활용 가능한 소중한 자산이다.

한국일보는 하루빨리 정상화 되어야 한다. 과거의 빛나는 영광을 다시 찾아야 한다. 자유가 넘치던 신문, 기자 사관학교, 4대 언론기업이 왜 이렇게 됐나? 한국일보여, 다시 일어나라. ☞

‘25시의 사나이’

‘왕초’ ‘대기자’

장기영의 신화가

어이 없이

무너지다니...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과거의 영광 되찾길...

## 이 시대 참 언론인을 찾습니다 2013 대한언론상 공모

대한언론인회는 언론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2013년도 대한언론상(제21회) 수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심사대상은 일간신문, 통신 방송 및 언론관련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기획 취재 보도, 논설 논평분야로 합니다. (수상자와 시상식 날짜는 10월 1일자 대한언론에 발표)

### 응모 요령

- 분야 : 1) 기획취재 보도 분야  
2) 논설 논평, 언론학술 연구분야
- 대상 : 일간신문 통신 방송 등 언론사 및 언론관련 단체 또는 개인
- 공적기간 :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

- 구비서류 : (개인) \*이력서 \*사진 2장(명함판) \*세부 공적 내용(A-4용지 2페이지 이내로 작성)1부 \*소속 단체장 추천서(A-4용지 1페이지 이내로 작성)1부 (단체) 단체장 추천서 1부 \*공적 자료 및 관련 사진 첨부
- 접수마감 : 2013년 9월 17일 오후 5시

- 수상자발표 : 11월 1일자 ‘대한언론’ 지상(시상일 추후통보)
- 접수처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1405호 대한언론인회 (우100-745) 전화 02)732-4797~8, 02)2001-7621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 '노인 폐기' 주장 최보식을 탄한다

## ■한마디■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  
·전 KBS LA지국장  
·수필가

## 구체적 문제점

## 지적없이

## 생물학적 나이

## 문제 삼는 건

## 무지거나 폭거...

조선일보 제 28804호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제목의 최보식 칼럼을 읽고 놀랐다. 조선일보의 오랜 독자이고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란 글을 잘 읽어 왔기에 최보식에 대한 실망은 더 컸다. 나이든 사람들이 나서는 것은 문제라는 글이었다. 생물학적 나이가 잣대라는 말이다.

### 노인회서 나서야 할 명예훼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그런 글을 쓴단 말인가?

74살의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다른 인사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문제를 적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기해야지 생물학적 나이만을 문제로 삼은 것은 무지이거나 아니면 나이든 사람에 대한 멸시와 폭거에 다름 아닐 것이다.

최보식은 <사람의 수명이 아무리 늘어났다고 해도 그 나이에 맞는 역할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어떤 사안을 판단하고 수행할 때 생물학적 나이의 한계란 늘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썼다. 더구나 김기춘 실장하나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고 <대통령직속 대통령위원회장은 만 71세, 문화융성위원장은 76세, 지역발전위원장은 71세,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 위원장은 77세였다.>고 썼다.

이들은 모두 생물학적 나이의 한계를 맞았기에 제몫을 하지 못한다고 단정한 글인 것이다. 거론 된 5명은 분명히 치매거나 그와 근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 셈인데 이는 명예훼손이다. 그 글을 읽고 제 삼자인 필자의 울화통

이 며칠이나 가시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한노인회의 늙은이들은 모두 뺨이 빠졌나 치매 걸려 정신이 없나 하는 생각도 했다. 이런 때는 잘난(?) 젊은이들을 본받아 조선일보 앞에서 단식농성이라도 벌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여기서 최보식 위원에게 말하고 싶다. 멀쩡한 늙은이들 업신여기지 말고 한창 일할 나이의 당신들이나 잘하도록 실력도 쌓고 노력도 더하라고...그리고 늙은이들이 보기에 안심이 되도록 맡겨진 일들을 잘 해 내라고...

### 늙음에 대한 인식 바뀌어

요즘 글 쓰는 기자들 하며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개판을 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는 하지는 모르겠다. 최보식 위원부터 良識을 補植하고 思慮를 보식하고 늙음에 대한 認識도 보식하라고 권하고 싶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 하나 털어 놓는다. 아프리카 한 부족의 이야기인데 늙어 가족에게 짐이 되고 부족에게서 따돌림을 받게 되면 어스름 저녁에 혼자 지팡이 잡고 뒷산으로 올라간다고 한다. 그리고 사자나 뱀의 밥이 되는 것으로 삶을 마감한다고...

노인계층에서 요즘 무조건 오래 사는 건 바라지 않는다. 적당히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참이 지난 8월20일자 조선일보에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기고한 <70대는 물러서라? 레이건을 보라!>는 제목의 아주 점잖은 글을 읽었다. 문제는 요즘 노인들의 건강이 좋아졌고 레이건이나

처칠같이 늙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었다는 사실보다는 최보식, 어쩌면 조선일보의 노인 폐기의식이다.

### 창조경제 기여토록 능력살려야

내 주변의 70대 노인들의 상당수는 당당하고 뚝뚝하다. 자식에게도 얹혀 살 생각 없고 더 늙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요양원가서 정당하게 살다가 죽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고 점점 늘고 있다.

그러니 늙은이를 괜히 짐으로 생각하고 도와야 한다면서 빈 호들갑 떨지 말기 바란다. 생각 있는 늙은이들의 걱정은 자신의 노후 보다는 젊은이들의 삶이며 나라의 현실과 미래인 것이다.

글을 쓰면서 정철의 시조가 생각났다.

“이고 진 저 늙은이 짐을 풀어 나를 주오/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늙기도 설웨라 커늘 짐을 조차 지실까?”

다른 것은 제쳐두고 오직 나이 먹은 것이 문제라는 최보식의 인식은 끔찍한 일이다. 당당하고 훌륭하고 멋진 늙은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의 능력을 더 키우고 살리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개발하는 데서 창조경제의 한 출구가 만들어 질 것이다.

정철시대와는 노인들의 생각도 다르다. “내짐을 내가 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늙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늙은이들은 늙은 대로 그 몫을 담당해야 한다. 늙은 경륜과 지성을 모독하는 패륜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필자]

## 김진배 회우 '두 얼굴의 헌법'

## 회우들이 펴낸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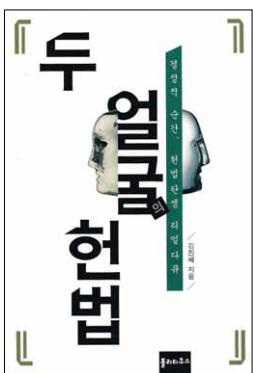
## 박실 회우 '중공군의 한국전쟁'

김진배(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전 국회의원)회우가 '두 얼굴의 헌법'을 펴내고 지난 8월 26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전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 많은 정치인들과 대한언론인회 회우를 비롯한 전 현직 언론인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사진)

‘두 얼굴의 헌법’은 1959년 기자 생활을 시작해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다 해직되기도 하고, 또 정계에 입문해 두 차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저자가 자신이 직접 만난 정치인들에게 듣고 취재한 내용, 그리고 국회 의사록을 토대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던 제헌회의의 풍경을 생생하게 되살려낸 책이다.

첫 페이지부터 당시 상황을 재현한 장면들(이 재현장면들은 철저히 국회의사록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고 있다)로 주목을 끈다. 특히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과 해설이 나와 현장감



을 더해 준다.

책은 1948년 제정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우여곡절과 1952년 부산정치파동과 발체개헌을 통해 헌법이 유린된 사실들, 제헌국회의 사당과 제헌 의원들의 생생한 일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에서 용산참사, 쌍용사태, 제주 강정마을 등 ‘헌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오늘의 현장들까지 연결시키고 있다.

이 책은 특히 실용서도 교양서도 아니다. 고상하다거나 심오한 이론서는 더

더욱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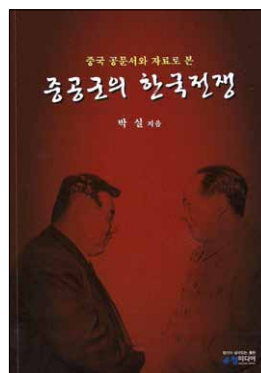
다만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누구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어떤 명분을 내 세우더라도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인 시민 사회의 기본원칙을 침해당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다면 한번 쯤 읽어 볼 만한 책이다.

〈(주)메디치미디어 펴냄·신국판 451쪽·값 26,000원〉 [필자]

한국전쟁 휴전 60주년을 맞아 중공군의 한국전 참전 경위를 중국 자료에 의해 중국 측 시각과 우리의 관점을 가미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한 책이 나왔다. 중국문제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 실(본회 이사·전 국회의원)회우의 역작이다.

한국전쟁이 주로 미·영 등 서방 측 자료와 시각에서 소개된 것과는 달리 중국 측 문서(檔案)와 자료, 중국 신진학자들의 해석과 참전 장성들의 회고록을 근거로 한 이 책은 스탈린, 모택동, 주은래, 팽덕회, 그리고 김일성과 박헌영 등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의 인간상과 그들 사이에 펼쳐진 음모와 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둘러싼 비화들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모습도 잘 대조되고 있다. 소련권의 붕괴로 한국전쟁을 일으킨 스탈린과 김일성의 관계는 많은 비밀기록문서의 공개로 이제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중공 측의 사정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이 책은 한국전쟁의 기원, 중공군의 참전과정, 작전의 전개 및 종전 경과를 모택동의 전략전술을 중심으로 생생하고 흥미진진하게 저널리스트한 문체로



기술되어 있다. 중공군의 내력과 항일투쟁과정에서 팔로군에 흡수된 수많은 조선의용군의 모습 그리고 간도의 조선족 동포들에게 닥친 희생 등도 소개되고 있다. 김일성을 무시했던 모택동과 팽덕회 등 중공군 지휘관들의 태도 변화, 중공 지휘부와 소련 고문관들의 충돌, 김일성에 숙청 당한 박헌영과 무정 등 팔로군 출신 연안계의 비운, 노련한 주은래와 스탈린의 담판, 그리고 김일성이 갈구한 정(후)전 회담의 앞 뒤, 야전에서 전투를 총지휘한 총사령관 팽덕회의 흥망도 과 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 김일성을 두둔, 북한의 남침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한·중수교 20년이 지나고 중국이 개방되면서 변화의 조짐이 이 책에 드러나 있다. 더욱이 전쟁의 전말을 오해하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적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전쟁의 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통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미디어 출판·360면·값 17,000원〉 [필자]

# ‘이석기類 중복세력’ 모두 척결하라

국가정보원은 지난 8월 28일 내란음모 혐의 등과 관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을 포함한 진보당 인사의 자택 또는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국정원은 수원지검을 통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이 의원 등의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다.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후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회의에 참석, 조직원들에게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 군사반란 수준의 발언을 한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내란음모죄라!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죄목이다. 감히 백주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란을 음모해? 유럽에서 사회주의자들의 무장봉기는 사실상 1871년의 파리 코뮌이 마지막이었다. 무지컬 레미제라블이 그리고 있는 세계이며 독일에서는 로자 룩셈부르크 등이 그리던 세상이다. 한국에서 직업적 혁명가는 1946년 박헌영의 탈주로 종언을 고하고 이후로는 줄곧 비합법투쟁이 대세였다. 1980년대 김일성은 한국의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합법·비합법 투쟁을 병행하는 절묘한 정치사회적 여건과 기회를 발견하였다.

김일성의 교시를 받은 중복좌파들이 한국 사회의 곳곳에 파고 들었다. 산업부문의 노동조합은 물론, 어린 학생들의 의식화를 꾀하는 전교조가 기저가 되어 상부구조를 파고 들었으며 공무원들이 노조를 꾸미는 전공노까지 생겨났고 심지어 국권의 핵심인 국회에까지 파고들었다. 이석기 등은 바로 이러한 중복좌파의 대표전 인물이다.

한국사회를 흔들던 중복좌파는 광우병사태에서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 광우병 사태는 ‘명박산성’이 시위군중을 지탱하지 못하여 청와대가 유린되려는 상황에 이르면 경찰이 부득이 발포하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이때 숨어 있던 조직으로 하여금 경찰을 향해 발포하여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면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발동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이룩해온 민주화와 산업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된다. 바로 북한의 김가 왕조가 바라는 상황이다. 중국과 일본도 패재를 부를 것이다. ‘유사시에 대비하여’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태(내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예비역 육군소장  
·군사학박사

김일성교시 받은세력  
사회 곳곳서 암약  
대공전선 위기상황  
국민모두  
경각심 가져야

다행히 이번에 이석기 등을 타진한 데에는 오랫동안 이들을 지켜본 국정원이 결정적이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기간조직인 국정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하는 의혹과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심지어 그동안 몇 가지 공작실패 사례를 들어 국정원을 해체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가장 능률적인 국가기관이 되어야 할 국정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며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않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밍고 실망스럽다고 하여 국회를 없앨 수는 없다. 박정희가 국회를 통일주체국민회의로 대체시킨 유신의 결과는 누구에게나 明若觀火한 착오요 실패였다. 국정원도 국회와 같이 국가가 존속하는 한 존재해야 할 기관이다. 문제는 어떻게 최고의 능률적인 정보기관을 만들 것인가 이지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은 문제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모토는 정보기관의 존재의의와 존립양식을 한마디로 집약한 명언이다. 영국의 MI-5, MI-6, 이스라엘의 신베트, 모사드와 같은 믿음직한 방패와 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요 과제이다.

감히 국가를 상대로 내란을 획책해? 물론 국가의 무력은 압도적이다. 그러나 이제 내란은 탱크나 기관총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정치전은 뼈라와 트위터로 성패가 결정난다. 이러한 전쟁은 정보기관이 앞장 서야 한다. 국군은 존재 자체가 국가의 무장력을 상징한다. 상징은 함부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 현대전에서는 유무형 국가의 모든 힘이 유효하게 조직되고 능률적으로 기능하여 국가를 지켜내야 한다. 모름지기 국민 모두가 대공전선의 마지막 고비에 와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투구 끈을 단단히 매어야 하겠다. 이번 이석기의원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중복세력들을 철저하게 색출하여 뿌리째 뽑아내야 할 것이다. [국]

## 언론가 소식

### 전곡 선사박물관등 문화탐방

대한언론인회 · 프레스클럽 회원 등 100여명 참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지난 8월 27일 전곡 선사박물관 등 연천지역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문화탐방 행사를 가졌다. 대한언론인회 회원과 프레스클럽 회원 1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문화탐방은 광릉 국립수목원과 재인폭포, 전곡 선사박물관을 관람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500년 넘게 유지 관리되어 온 광릉 국립수목원은 총면적 335만평. 왕릉면적만 51만평, 30만평은 전문수목원이다. 254만평의 천연수목원에는 목본식물이 1,863종류, 초본식물이 1481 종류로 모두 3,344 종류의 식물이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 수목뿐만 아니라 새, 곤충, 물고기 등 동물들도 4,000여종이 서식하고 있다. 수목원 내에 자리한 광릉은 세조의 능이며 오른쪽 봉분은 정희왕후의 능이다. 세조가 “내가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과 석곽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병풍석을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겨 이 유언에 따라 이전까지 석실로 되어 있던 능을 회격(灰隔)으로

바꾸어 부역 인원을 반으로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세조의 광릉은 자리가 좋아 조선 500여 년을 세조의 후손들이 통치하였다고 전하기도 한다. 1468년(예종 즉위) 11월 28일 주엽산 아래 세조를 예장하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1483년(성종 14) 3월 30일 정희왕후가 승하하자 같은 해 6월 12일 광릉 동쪽에 안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인폭포에 얹힌 전설도 흥미롭다. 옛날 이 고을 원이 한 재인(才人)의 아내가 절색인 것을 보고, 재인으로 하여금 이 폭포에서 줄을 타게 하여 죽게 하고 아내를 차지하려 하였으나, 그는 자결하고 말았다. 그 후 사람들은 재인의 한이 서린 이 폭포를 재인폭포라 불렀다고 한다.

이날 탐방코스의 하이라이트는 전곡 선사박물관. 동아시아 최초로 구석기시대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된 경기연천군 전곡리 한탄강변의 선사유적지(국가사적 268호)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릉 국립수목원에서 박용식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있는 화우들.

선사박물관이다. 경기도가 전곡리 선사유적지 7만 2,599㎡에 482억원을 들인 이 박물관은 용의 몸통을 형상화한 모습이 특징이다.

선사시대 거대한 동굴처럼 꾸민 박물관 내부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호모 에렉투스 같은 고인류 복원상 14점을 비롯해 매머드 모형 등을 전시한 상설전시실과 발굴체험, 동굴 벽화 그리기 등을 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이번 문화탐방은 특히 한탄강 유역의 메기 매운탕과 백석읍 삼계탕이 일미여서 눈요기도 좋았지만 입 맛 또한 백미(白眉)였다는 후문이다.

〈글 사진 : 한국언론재단진흥재단 경영지원팀 김태우 차장〉

### 신문논술대회 수상작 발간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8월 7일 2013 신문논술대회 수상작을 엮은 책 ‘신문 읽기의 즐거움’을 발간했다.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은 ‘나와 아버지의 신문’ (최규진·중앙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은 아버지와 소원했던 관계를 신문을 매개로 회복했다는 따뜻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밖에 각 부문별(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일반부) 금·은·동·장려상을 받은 작품 등 총 121편이 실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 책을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하는 한편, 재단 홈페이지(www.kpf.or.kr)와 미디어가온(www.mediagaon.or.kr)을 통해 무료로 공개한다. [국]

〈축〉大韓言論 창간 36주년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화 융성  
행복 풍성

#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北核 본질 외면 개성공단 합의 찬양

석달 여 표류한 개성공단의 남북협상이 8월14일 7차 회담으로 정상화에 합의하자 신문들은 경천동지할 사안인 양 수개 면에 걸쳐 환영 일색의 보도태도를 보였다. ‘신뢰프로세스 시동’이란 찬사도 나왔다. 그러나 많은 식자들은 ‘북핵을 머리맡에 두고 사는 불안한’ 안보상황에서 근본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북한에 돈 대주는 개성공단으로 북한과 어떤 고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가 서둘러 또 북핵 무기 정밀화의 돈줄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한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북핵 본질은 외면한 채 이벤트성 이산가족 상봉, 연 4,000만 달러의 현금인출기인 금강산관광 재개와 국군의 무장 해제와 다를 바 없다며 반대하는 성급한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계획 등을 대서특필했다. 안이한 국가안보의식이다. 신문들이 ‘박근혜 원칙의 승리’라면서 아부를 떠는 가운데 문화일보만 중심을 잡고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이명박 정부의 체계적인 5년 여 대북 제재 정책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북핵 문제를 짚은 것이 돋보였다. 1년에 북에 9,000만 달러를 주는 개성공단이 다시 열린다고 남한 정부가 입도 뺏긔 못하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북핵과 경제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가 안보는 제쳐놓고 경험만 우선시하는 미봉적인 투 트랙 구사는 무언지, 좌익 정권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게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북한만 알 것이다.

## “北 변화 국제사회 압박 덕분”

문화는 16일 ‘남북관계, 對北 원칙 훼손도 過速도 없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북한 정권의 본질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허울만의 대화·평화 공세에 휘둘린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저 자세·퍼주기’ 대북 정책을 되풀이할 뿐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협상에서 외양으로나마 변화 제스처를 보인 것은 지난 5년 이상 ‘대북 원칙’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응징하고, 진정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에 나선다는 원칙에 대해 이명박 전 정부는 물론 유엔과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확고한 공감대를 이루고 전례

없이 북한을 압박해왔다. 최근 파나마에서의 북한 화물선 검색이 이를 상징한다. 박 정부가 북한의 진정성도 확인되지 않은, ‘앞드려 질 받기’식 합의를 해놓고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히 짚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개성공단 합의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과 북핵 해결의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북핵은 언급했지만 북을 지원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논리를 펴면서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등은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새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갈 출발점은 6·15 공동선

발은 눈감아도 될 경험의 하위개념이 아니다. 북핵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없다. 공단 정상화는 필요한 것을 원하면 약속을 지키라는, 평범한 진실을 북에 깨우쳐주지 못했다. 신문들은 이런 점을 지적하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19일 사설 ‘5·24 대북제재 완화 필요하지만 과속은 금물’에서 “남북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국제화를 이루고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5·24 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폭침이 국제합동조사단의 확고한 물증으로 북측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책임 인정과 사과는커녕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어느 한쪽만 서두른다고 남북관계가 단박에 호혜적 관계로 바뀌지 않는다. 그간 북한의 약속 위반과 돌출 행위를 돌이켜 보건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보조를 맞추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아리송하게 썼다.

## 조세저항 돌파 위해 졸속 합의?

조선은 15일 “‘北의 謝過 명문화 못한 채 합의… 문제 소지’ 기사에서 여론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증세문제로 곤경에 처하게 되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관계에 성과를 낼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사과’ 부분도 양보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고 썼다. 문화도 16일 “일각에서는 최근의 ‘내치불안’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여준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개성공단이 겨우 원점으로 되돌아 온 것에 불과한데도 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수많은 제안들을 마구 쏟아냈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개성공단 기업의 피해는 국민 세금을 축낸 사태다. 사과나 피해보상 보장 없이 덤석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구호로 집권한 보수 정권이 월급쟁이들의 유리알 지갑을 털려다가 격렬한 조세저항의 역풍을 맞고 이를 덮으려고 서둘렀다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4]

## 문화일보만 ‘5년간의 제재 성과’ 지적 ‘국제공조에 구멍 위험성’ 경고 안보여

1991년 남북 불가침 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과 무력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2000년 6·15 공동선언 2년 뒤 서해교전을, 2005년 6자회담 비핵화 합의 1년 뒤에는 1차 핵실험을 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새로운 대북 제안을 하고,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나 DMZ평화공원 TF 구성 및 조성 지역까지 거론하는 등 과속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원칙의 훼손이나 정치적 이유에 따른 과속은 결국 남북 관계도 망치고, 국익도 해치게 된다는 것이 수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 안보와 대북협력 양립 의문

조선일보는 15일 사설에서 “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서 세계의 상식이 통하는 새 틀을 짜겠다고 해 왔다. 이번 합의는 이런 노력의 첫 결실이다”라고 찬양하면서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가 남북 관계 전체를 정상화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 현안

언과 10·4 정상선언 등 중요한 합의들의 존중이다. 남북관계 진전은 6자회담 재개 등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동력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지난 10여년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 북측의 핵 포기 결단만을 요구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한반도와 관련된 다른 모든 과제도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논의 틀이 제대로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문화의 논조와 한참 다른 한겨레는 좌익 정권 때의 합의만 강조할 게 아니라 북한의 호전성, 긴장의 핵심이자 남북관계 최대의 장애물인 남북 비핵화선언의 과기도 비판했어야 했다. 모든 문제를 남북이 해결해야 한다면 북핵이 허송세월로 무용지물화한 6자회담에 던질 공이 아니다.

중국의 가세로 효율성이 높아진 북핵 제재 국제공조에 한국이 구멍을 뚫는 일은 아니었는지 하는 신문들의 비판은 보이지 않았다. 남북합의문은 ‘어떤 상황에서든 개성공단은 유지돼야한다’고 했다. 종북 유화파들은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때 개성공단을 안 닫은 것을 자랑이라고 한다. 북핵과 무력 도

## 사우회 소식

### 경향신문

#### 사우회보 49호 발행

경향신문 사우회(회장 김명수)는 지난 8월 20일자로 사우회보 49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16면으로 나온 이번호는 우선 편집스타일이 돋보이는 가운데 정보 또한 다양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경래, 심상기 본회회우의 출판기념회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사진과 함께 올리고 ‘전설에 정

사를 입히다’ 제목을 단 것이 또한 이채롭다. 5년만의 야유회 소식과 최서영 본회 원로회우를 현직 정치부장이 인터뷰한 ‘소공동시대 & 정동시대’, 박석홍 본회 편집위원의 ‘京鄕遺事’도 눈길을 끈다.

### 동아일보

#### 동우회보 33호 발행

동아일보 사우회(회장 김광희)는

지난 8월 20일자로 동우회보 33호를 발행했다. ‘동우회장배 바둑대회’ 창설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올린 이번호는 타블로이드 16면, 홍용수 본회회우의 ‘제3회 동우교양강좌’ 출강소식이 눈길을 끈다.

다채로운 사진을 곁들인 산클럽, 사진클럽, 클래식음악클럽 등 동아리모임과 8-9면 통판으로 편집된 ‘선후배 대화’가 특히 압권이다.

김광희 회장의 조사와 이혜복 본회 상임고문의 부음을 비롯, ‘그 때 그 시절 남은 이야기’(백년설 은퇴공연·안평선 본회 이사 집필), 조강한 본회회우의 ‘출판의 변’ 등 많은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KBS

#### 사우회보 136호 발행

KBS사우회(회장 정근춘)는 지난 8월 7일자로 사우회보 136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8면으로 나온 이번호는 방송사 최초의 ‘KBS 시니어직능 클럽’ 출범 기사가 톱이다.

7면 김진기 본회 발전기획위원장의 ‘그때 그 이야기’가 흥미롭고 4면 ‘TV 세트계의 만형 최형주 회우-만나고 싶었습니다’도 지난달에 이어 주목도를 더해 준다.

# 정치권 억지외압에 휘둘린 편성권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위한 문제를 들춰내려면 지난 한 달에도 보는 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개별 프로그램보다 원론적인 얘기를 해봤으면 한다.

지난 7월 2일에 시작돼 8월 23까지 우리 정치 환경을 둘러싼 문제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일 것이다. 오랫동안 여야 간 정쟁의 원인이 돼 왔던 지난 대통령 선거 전 일어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국력을 소진할 지경의 여야 간 다툼 끝에 간신히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열기로 결론지어졌고 국회는 국정조사위원회 구성과 증인 채택, 조사 일정까지 합의했다.

## 민주당 개회거부로 줄다리기

그러나 국정조사는 첫날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당일 오후에야 일정을 바꿔 열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여야 합의로 요청한 지상파 방송 3사의 국정조사위원회 개회식 공동중계방송이 방송사 거부로 중계가 안됐기 때문이었다. 이른 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국회가 요청한 방송사에 대한 공동중계방송 요청은 방송사측이 편성변경에 대한 시간상 제약으로 중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중계방송이 무산되게 되자 민주당이 회의 개회를 거부하고 나선 때문이었다. 국정조사위원회 회의는 여야합의로 방송사에 거듭 중계방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 개회를 할 수 없다는 요청을 하게 되고 급기야 당일 오후 2시로 연기된 뒤 지상파 방송 3사는 긴급 편성으로 위원장의 개회사와 여야간사의 모두발언을 중계함으로써 53일간의 알맹이 없는 정치 쇼인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이후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방송 3사는 증인신문 등 주요 청문회 일정을 각자 결정에 따라 중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 의한 방송사의 편성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국정조사위는 진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조사가 국민의 관심아래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점에서 중계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방송사에 사전 협의를 통해 긴급편성의 필요성을 알리거나 해 방송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공영방송도 아닌 상업방송까지 공동중계에 끌어넣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상파 방송사 공동중계라는 조건을 요구한 것도 문제라고 본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문제는 정치권에서 제기할 수는 있어도 판단과 결정은 방송사의 문제이고 편성을 하느냐의 여부도 전적으로 방송사의 권한이다. 편성권이야말로 바로 방송권이기 때문이다.

## 방송법에 보장된 자율권

방송 편성권의 자유는 방송법에서 규정한 편성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자율권으로 정치권은 물론 방송 안팎의 어떠한 세력으로부터의 간섭이나 압력에서 자유로운 권리인 것이다.

방송사 입장에서 긴급편성의 어려움 등을 들어 중계를 할 수 없다는 당초의 판단이 옳았는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또 처음에 긴급편성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중계방송을 하지 않아 국정조사위원회 일정을 망가뜨리고는 그날 오후 다시 편성을 변경해서 방송3사가 공동중계에 나선 것은 방송사가 명백히 정치권의 압

▽  
방송시평



오건환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총국장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 국정조사 실황 지상파 3사 공동중계 오전엔 “불가능” 오후엔 긴급편성선회

력에 굴복해 편성권의 자유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방송의 긴급편성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얼마든지 방송 중에도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최종 결정은 방송사 내부 규정에 따른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위 개회식 공개 결정에 따른 지상파 3사 공동중계방송 무산과 긴급 재편성에 따른 중계방송 건은 정치권에서 보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고 정치권의 오만과 무능의 단면을 보여준 일일 수도 있지만 방송의 입장에서는 방송의 생명인 편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요 빼아픈 포기인 것이다. 더구나 입만 열면 나오는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시행된 중계방송 결과 위원장의 국정조사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왜곡된 개회사와 이에 대한 여당 간사의 모두발언에 앞서 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반박 등은 정치적 편향과 일방적 주장인 것으로 드러나 애초부터 알권리 충족은커녕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만 안겨주었다.

## 야당간사 발언 ‘정치쇼’ 입증

정치적 쇼의 절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한 야당 간사의 모두발언에서 절정을 이뤘다고 본다. 야당 간사는 국정조사 시작을 알리는 모두발언에서 아무런 논리적 근거나 입증 없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이 총체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부정을 저지른 선거법 위반의 범죄라고 단정을 해버림으로써 사실이 그렇다면 이런 명백한 사실을 두고 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검찰의 기소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단언하건대 이번 국정원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 조사는 여야의 정파적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자신들만의 국판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의 중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그것이 아무리 유치하고 정치적이고 선동적이거나 위선적이기까지 하더라도 방송을 통해 유권자에게 보일 수만 있다면 어떤 정치적 쇼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예라고 본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방송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사항인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방송사의 판단이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중계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편성변경 불가 결정을 내렸다면 편성권을 살린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한 결론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점을 충분히 고려했음에도 기술적인 문제로 공동중계방송 불가 결정을 내렸다면 그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 하나 방송사의 애초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이 가는 것은 오전에 편성변경 불가란 결정을 오후에 뒤집어 긴급편성변경을 한 것은 정치권의 명백한 압력에 굴복해 편성권의 자유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처음부터 중계결정 했어야

이 문제를 제기하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킨다는 점을 중요시 해 처음부터 편성변경으로 중계를 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랬다면 국정조사가 처음부터 심하게 꼬여 끝까지 증인과 상대 당 의원에 대한 인격 모독, 막말 파동을 조급이라도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또 모든 것이 방송사 자율에 의해 편성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지상파 3사 공동중계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무어라고 하든 명백한 편성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성사가 안 된다고 성사 될 때까지 회의를 거부하는 행위를 정치적 압력이 아니라고 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편성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와는 관계없이 이번 국정조사가 국민에게 우리 국회에서는 ‘혹시나’를 기대하기가 아직도 멀어 ‘역시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것이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 중계의 소득이라면 소득일 것이다.

국민은 정치권이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연다고 해도 거기에서 이뤄지는 어떤 말이나 행위도 믿을 수 없게 됐다. 국회 회의 장면이 중계될 때마다 국민은 “어느 당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 아무개 의원입니다”란 말을 듣게 되는데 그때마다 커다란 명패도 놓여 있고 웬만하면 얼굴과 이름을 다 아는 의원이 왜 자기 입으로 어느 지역구를 들먹여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오직 유권자만을 보면서 내 비록 미친 짓을 하더라도 분명히 국회의원의 노릇을 하고 있으니 다음 선거에서 꼭 부탁한다는 어설픈 코미디를 보고 있다는 괴로움을 겪는 것이 비단 나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절망 속에서 국민은 그래도 국회가 나라 살림을 풍족하게 해서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이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발짝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정치권의 방송 편성에 대한 자율성 침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방송을 통해 드러난 국회모습의 편란에 대한 군더더기 생각을 덧붙여 본다. [국회]

3사 공동중계 편성문제는 국정조사위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별개로 명백한 정치권의 방송에 대한 압력이고 방송의 고유 권한인 편성권의 침해다.

이렇게 볼 때 정치권 특히 야당인 민주당 조사위원들이 중계방송 불발에 따른 회의 거부를 통해 결과적으로 중계방송을 성사시킨 행위는 입만 열면 방송에 대한 외압, 구체적으로는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과 압력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으나 바로 자신들 또한 언제라도 할 수 있는 행위였음을 증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겠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정조사 개회식 방송3사 강제 공동중계는 여야합의에 따른 정당성 여부와 달리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정부 여당에 의한 정치적 외압과 방송장악의도의 불순성을 자신들이 먼저 드러내 저지른 결과였음을 보여준 명백한 사례이다.

## ‘알권리’ 고려 했는지 의문

이와는 달리 이번 문제에 대해서 방송사의 입장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다. 우선 편성권의 자율성을 얼마나 지켰느냐 하는 생각이다. 오전 10시 개회 중계를 위한 편성변경이 불가능했었던 것이 오후 2시에는 가능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오후 2시에 편성변경이 가능했다면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오전에도 편성변경이 가능했으리라 본다. 편성변경의 기술적 문제보다 방송의 중요성에 대한 편성변경의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방송 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숙고 끝에 내려진 결론인지 의아하다. 되풀이 하지만 긴급 편성변경은 기술적으로 다른 프로그램 방송 중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편성변경을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긴급성, 중요도 등과 기술적 문제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문제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필요성이고 이 문제가 진정으로 국민의

# 산골노인 白民선생 농사짓고 詩 짓

## 작년에 등단 詩人으로

산골노인이란 닉네임의 시인 李學周 회원은 34년생이니 올해 80세, 그러나 나이는 상관없다.

白民이란 호에 걸맞게 흰머리가 가득 하지만 열정은 불같다. 처음 만나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흰머리에 검은 눈, 불빛 담은 시선, 거침없는 말 때문이었다. 지난해 그러니까 79살에 문단에 등단해서 시인이 됐단다. 그것도 두 군데 문예지에서 詩로 추천을 받았더니 그 자체로 특이하다.

현재 18개 문인단체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왕성한 詩작업을 하는 그가 놀랍기만 하다. 문학여행을 즐기고 식도락도 즐기며 노년을 열정으로 태운다. 문예복지재단의 창작지원금을 받아 곧 시집도 출간할 계획이다. 이쯤해서 이회우의 詩세계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다. 요즘 날씨와 못된 정치판을 보고 그대로 갈겨 썼다는 <오! 하늘마저 왜 이러십니까?>라는 제목의 詩를 소개한다.

-오! 하늘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 보기 싫어서 물벼락 불벼더위 잇달아 퍼부어/술한 생명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꼬락서니 기가 막혀서/탈세하는 재벌 양심 가증스러워

나랏일 한답시고 혈세나 빼먹는/도둑놈 심보 같은 공무원들

민생은 굶주려 죽거나 말거나/검은 돈 훔쳐 먹기 시뻘건 눈알

패거리 싸움질에 피투성이가 된/난장판 여의도가 역겨웠나요

하락... -

詩語의 내뻘음에 정말 거침이 없다. 땀별이 무서운 날 오폭음 능평리 자택을 찾았다. 산속의 자택은 넓은 대지에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별장 분위기다. 가까운 햇살이 겁나 열른 마루로 올라서며 흘깃 보니 정원의 잔디는 멋대로 자라 이발한 지 반 년은 넘은 머리 형국이고 들쭉날쭉한 꽃나물을 덮고 수북하게 자랐다.

## 중학교때 월반으로 고교진학

뒤에 선 사모님의 가는 소리가 들렸다. “저 들개 뽑았어야 하는데...”

손님이 보게 돼서 민망하다는 뜻으로 들렸다. 류주순 사모님은 이회우보다 두 살 아래시다. 경상도 상주 양반 댁 따님으로 곱게 자라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서울로 시집와서 고생 많으셨다고 했다. 과일과 커피를 내오시는 사모님의 곱은 허리가 안쓰러워 보였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산골이라서인지 선풍기 바람이 참 시원했다.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지요.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이 어려워 초등학교 때 인천으로 이사를 했고 어머니가 노점상으로 가게를 꾸렸어요. 아버님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으셨고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어요.

##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62>

회우초대석

李學周

인터뷰 : 글

처음 인천에서 전깃불을 봤는데 신기했어요. 꺼보려고 입으로 후후하고 불었더니 외6촌 동생이 바보라고 놀리며 손으로 스위치를 돌려 끄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촌놈이란 놀림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공부는 잘하셨지요.

“인천중학교를 다니다 1년 월반해서 바로 인천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3반 때 친구 중 하나가 KBS 사장을 지낸 홍모씨예요. 고교 졸업하고 서울대 낙방하고 성균관대학교로 진학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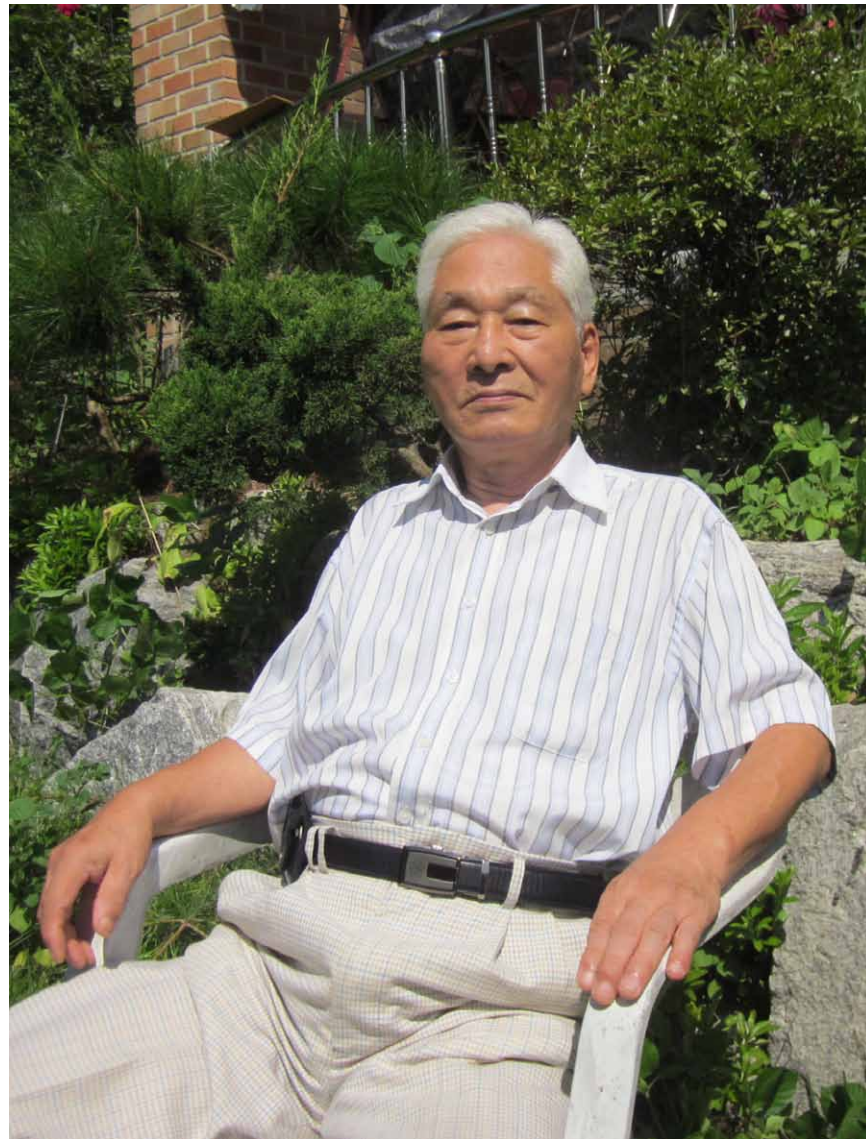
대학시절 성대신문 기자로도 활동했구요.”

## 야당 정치인으로 ‘햇발질’

이회우는 대학 다닐 때인 1955년부터 정치활동을 했고 10여 년 동안 야당정치인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다.

회한의 시기였다는 회고담을 이회우의 <나의 햇발질 10년>이란 글을 통해 들어 본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랐던 시절. 1955년 대학 2학년 때 어느 정치교수의 꾀에 빠져 4사5입 개헌에 반대하고 범야세력의 신당창당에 학생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해공 신익희, 유석 조병옥, 장면 박사 등이 범야 지도자들이셨지요. 민주당 경기도당 총무간사였을 때입니다. 해공 선생이 호남 유세 중



별장분위기의 자택 정원에서 포즈를 취한 이학주 회우.



500여평에 달하는 정원

## 北 포격에 침몰하는 당포함 사진보고 쓴 詩로 문 요즘은 하루 詩 3편 쓰기도... 18개 문학단체 참여

서거하시어 유해가 서울로 돌아오실 때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를 외치는 군중데모가 벌어졌어요. 이때 해공의 비서였던 유지송씨 등과 함께 앞장섰습니다. 이 사건이 5·5소요사건인데 주동자로 지명수배를 당하는 열간이가 되었습니다. 베고픈 야당 생활 10년 햇발질 만하고 금쪽같은 인생을 낭비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결혼식 때는 유석 조병옥 박사가 주례를 맡았고 4·19에 이어 민주당 장면 정권이 들어서면서 잠깐 햇볕 속에 갇혔다. 28살 때였다.

이회우 내외는 용두동 판잣집에 살고 있었는데 청탁하러는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왔고 어떤 이는 돈이 든 사과 껍질을 들이밀기도 했었고, 또 어떤 이는 28살 짜리 보고 영감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 때를 회상하며 이 회우는 “배고프면 소금이라도 먹는다지만 배고프고 가난한데 돈 싸들고 찾아오니 거절하기가 무척 힘들더라구요.”라고 털어 놓았다.

5·16이 터지면서 또 지명수배자가 되었다. 어려운 삶이 지속됐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장사를 했으나 연달아 실패했고 해수욕장에 가서 방갈로 사업도 했으나 본전도 건지지 못했다. 생활이 막막해 진 사모님이 팔 걷고 나섰다. 교직 경험을 살려 産硯교사(산후 휴가 중인 여교사를 대신하는 임시 교사)로 이 학교 저 학교로 옮겨 다니며 일하는 등의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

-어떻게 해서 기자가 되셨나요?

“실업자의 파분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일간지에서 국방부가 전우신문 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봤어요. 대학신문 기자 경력 덕에 합격했던 것

같구요. 1966년 12월이었습니다. 편집기자로 일했어요.”

- 전우신문 기자생활은 어땠습니까?

“타성에 젖은 신문 편집. 그저 월급쟁이의 생활이었지요. 입사 다음해인 1967년 1월9일 당포함(56함) 사건이 터졌어요. 당포함 사건이란 46년 전 동해상에서 명태잡이 어선들의 어로지도를 하고 있던 우리 해군 함정을 북한이 해안포로 공격해 침몰시키고 해군 39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지요. 우리는 46년 전 그 때 당포함 사건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또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46명의 해군을 전사하게 만들었지요.”

## 전우신문 거쳐 한국경제로

“또 전우신문 편집실에서 당포함이 침몰하는 사진을 봤어요. 함체의 대부분

1967년 이회우는

# 있는 열정의 삶

· 전 한국경제 편집부장  
· 현(사)청권사 이사장 직무대행  
· 시인

사진 =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수필가)



이르는 농토에서 기른 노각을 들고선 이학주 회우 부부.

## 화부 스카우트 바쁘디 바쁜 삶



북한의 해안포공격으로 침몰하는 당포함 최후의 모습.  
은 이사진을 보고 쓴 詩로 문화부 기자가 됐다.

분이 사라지고 꼬리의 5자와 6자만 보이는 장면이 특히 뇌리에 박혀 弔詩를 한줄 썼어요. 문화부장이 보고는 ‘이기자 시가 좋네요’ 라더니 함께 일하자고 해서 문화부 기자가 됐어요.”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부장을 하셨지요.  
“전우신문사와 한국경제신문사가 한 건물에 있었어요. 그게 인연이 돼서 한국경제신문 편집부 차장, 사회부 차장, 편집부장, 특집부장 등을 맡았어요. 주간지 일요신문 담당 편집부장으로 일하면서 신문이 팔리게 하려면 3S(Sex, Sports, Screen)를 살려야 한다고 위에서 강요했지만 먹혀들지 않았어요. 요즘 방송, 신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시청률 높이고 독자 모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기자 생활 15년은 나름대로 편안했고 보람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왜 그만 두셨어요.  
“그만 둔 게 아니라 잘렸지요. 1980년 12·12 이후 서울시청 지하병커로 기사 검열을 자주 받으러 갔고 돌출 질문을 몇 번인가 했더니 군부에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검열에 참여했던 이 모 대령이 81년에 한국경제신문 전무로 오더니 사표를 내라대요.”  
신문사를 그만 둔 이 회우는 또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패하고 살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다가 1982년 1월에 새마을금고연합회 홍보실장으로 새 일을 시작했다. 기자 경력자를 홍보요원으로 발탁하라는 당시 서정화 내무장관의 지시의 결과이니 기자 경력의 덕분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홍보실장 자리에서 직위해제 된 일도 있었다구요.

“전경환 한테 밍보여서 그랬어요. 전씨의 새마을행사 연설문원고를 마감 시간 때문에 새마을금고 연합회보에 신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노태우씨의 6·29선언 이후에 복직 시켜 주더라구요. 취재하고 글쓰고 새마을 금고 25년 사도 편찬하고 정말 바쁘고 신명나게 일 했습니다.”

이 회우의 삶은 그 자체로 드라마요 장편 소설이었다. 새마을금고 대구시 사무국장, 서울시지부 사무국장, 경기도 지부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정년퇴임했다. 정년퇴임은 일생에 단 한번이었다.

서울시지부 사무국장을 하면서 고건 시장에 대든 이야기하며 후배들로부터 금관 선물을 받은 이야기 등은 줄인다.

이 회우가 주인공인 소설이야기는 마치고 이제 늙은 시인이 된 이회우의 詩 세계를 돌아본다. 지난해 등단한 이 회우는 하루 세 편의 시를 쓰기도 했다. 하루에 세 편을 쓰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다. 이 시인의 시는 직선적이고 거침이 없고 열정적이며 풍자 또한 화끈하다. <전 붓 대>라는 시 한 편 더 옮겨 실는다.

-내가 어느 날 술 한 잔 걸치고/몽롱

##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①9

### 전립선암 꼭 수술해야 하나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고령자일수록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나 성장이 느린 고령자의 전립선암인 경우 환자가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관절염 등을 가지고 있다면 전립선암으로 죽기보다는 다른 질환으로 죽을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암 자체의 치료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학술지 내과학회지(Annals of Internal Medicine)가 최근 캘리포니아 대학 티모디 다스키비치(Timothy Daskivichi)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다스키비치 교수는 1994년에서 1995년 사이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3,000명을 대상으로 14년간 이들의 생존율을 조사 분석하였다.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이들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이외에 어떤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왔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그리고 당뇨병 등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 집중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환자들 중 전립선암 이외의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은 10년간 40%였으나 전립선암으로 사망할 위험은 14년간 3%에 불과하였으며, 75세 이상인 경우 다른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은 71%였으나 전립선암으로 사망할 위험은 14년 사이에 7%

로 낮았다. 즉 전립선암 환자가 전립선암 자체로 죽을 위험은 아주 낮은 반면 다른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합병증이 많은 전립선암 환자의 경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이런 부분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이득과 단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성장속도가 빠른 전립선암인 경우에는 치료로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환자가 성장속도가 빠른 전립선암으로 14년 내에 죽을 위험은 18%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전립선암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 이로 인해 발기부전, 요실금 그리고 대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다스키비치 교수는 느리거나 보통의 성장속도를 가지고 있는 전립선암인 경우 진행이 느려(indolent)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라면 특히 고령자가 여러 만성적인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립선암이 발견된다고 해도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 꼭 수술과 항암제투여 또는 방사선요법 등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4]

하게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로변에 오만하게 서있는 너를 보고/

굴종하지 않는 너의 무릎을 응징하기 위해/평양 박치기로 냅다 들이 받았지만/ 나는 쓰러졌는데 /너는 나를 내려다보고 빙그레 웃고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너를 보면 주눅이 든다./세상 겁없이 강다구로 살아왔지만/내 박치기 한방에 안 떨어진 놈 없었는데... 하략-

이 회우는 시가 신난다. 상주서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잡지에 글 싣고 공책도 받고 크레용도 받았던 추억이 요즘 활기차게 되살아났다.

詩가 회열을 가져다준다는 이회우를 사모님이 詩가 밥 먹여 주느냐고 타박도 하지만 그래도 시가 좋은 걸 어떡 하나며 크게 웃는다.

#### 농사일은 부인이 도맡는 셈

이회우의 전원주택 주변은 온 통 나무로 덮인 산이다. 이 가운데 휴경지 500여평을 개간해서 오이, 호박, 고추, 토마토, 감자, 고구마, 파, 마늘, 그리고 더덕까지 온갖 작물을 심고 가꾼다.

이 회우는 詩쓰느라고 컴퓨터 앞에 있을 때가 많아 농사일은 허리 굽은 사모님 류 여사 뒤편이 될때가 훨씬 많다.

그래도 이회우가 훨씬 더 바쁘긴 하다. 詩쓰기 말고도 문학 모임에 참여해야 하고 복지회관 가서 헬스도 하고 바독도 두어야 한다. 500원 짜리 기계 마사지도 받아야 한다. 물론 친구들도 만나야 한다. 인터뷰를 끝내면서 물었다.

-요즘 기자와 언론을 어떻게 보세요.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산삼 캐는 자세로 해야 하는 데 요즘 너무 쉽게 쓰고 멋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큰 독이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확하게 취재하고 바르게 보도하는 사실화 작업에 올인 해야지 지금 같은 모르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전주이씨 후손으로 효령대군파인 이회우는 종친회인 사단법인 淸權祠(청권사)의 이사장 직무대행도 맡고 있다. [4]

옛날에는 한의학(漢醫學)이라 하던 중국의 전통의학을 지금은 중의학(中醫學)이라 하는 모양인데 중의학에는 세 가닥의 흐름, 곧 세 개의 기둥이 있다.

그 첫째가 황하(黃河) 문화권의 침구(針灸) 의학이다. 황하문화권을 형성한 종족의 선조는 기후가 격변하는 평원(平原)에서 목초를 찾아 옮겨다니는 유목민이었다. 그들의 옷은 짐승의 털가죽이라 추운 날씨 속에서 옷을 벗고 하게 되는 의료체계는 발전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인지 머리와 손발 등 노출부위에 뽕죽한 돌이나 뼈조각, 또는 가시로 자극을 주거나 울혈이나 종기·부스럼을 짜거나 살갗에 불기운을 갖다 대는 침구(針灸)치료가 발달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한 경험의 축적에서 몸의 특정 부위가 자극에 대하여 과민한 것을 알아 차리게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경혈(經穴)이라 하는 침자리, 뜸자리이다.

가상의 의신(醫神)인 황제(黃帝)가 썼다는 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을 필두로 중의학의 바이블이라는 영주경(靈樞經), 상한론(傷寒論), 맥경(脈經), 침구갑을경(針灸甲乙經), 금궤요략(金櫃要略), 중장경(中藏經), 황제내경태소(黃帝內經太素),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황제八十一난경(黃帝八十一難經)이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축적된 중의학의 고전인 셈이다. 나는 그 10권을 다 소장하고 있으나 대단히 난해한 고전들을 남김없이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말이 된다.

둘째는 강남문화권의 탕액(湯液)의학이다. 무더운 날씨와 온갖 식물이 무성한 강남 문화권에선 초근목피(草根木皮)로 병을 고치는 약물요법이 발달하게 된다. 여러종류의 약재를 배합함으로써 어떤 병상(病狀)에 어떤 약재가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이 처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것이 약재를 끓여서 마심으로써 병을 고치는 탕액의학이다.

고구려의 온달(溫達) 장군이 신라에 빼앗긴 한강 이북을 탈환하기 위해 590년(영양왕 1년) 출정했다가 전사한 곳이 서울 광진구 아차산성(阿且山城)으로 잘못 알려져 오고 있다. 광진구는 아차산생태공원에 온달과 평강공주(平岡公主)의 동상까지 세워 놓았다. 광진구 중곡동에는 평강공주의 동상도 있다.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삼국사기〉온달열전에 따르면 온달이 전사한 곳은 아차산성이 아니라 아단성(阿旦那城)이라고 했다. 온달이 신라에 빼앗긴 고토를 수복하고자 출정한 것은 영양왕 즉위 직후인 590년 10월. 온달이 수복하려던 ‘계립현(鷄立峴)과 죽령(竹嶺) 서쪽’은 현재 강원도 지방 대부분이다. 온달열전은 ‘신라군과 아단성 밑에서 싸우다가 유시(流矢)에 맞아 죽었다’고 했다. 온달이 전사한 아단성은 어디일까.

지금까지 아단성을 아차산성으로 비정해온 것이 학계의 정설이 되다시피했다. 아차산성을 아단성으로 추정한 이유는 첫째, 아단의 단(旦那)과 아차의 차(且) 두 글자의 모양이 비슷한 데서 비롯된 착각과 건강부회의 결과요, 둘째는 식민사학자 이병도(李丙燾)가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요, 셋째는 위치가 한강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이었다. 즉, 온달의 말 가운데 ‘신라는 우리 한

# 續 병은 낫는다 <1>

## 양생법의 뿌리와 열매

### 약과 먹거리는 뿌리가 같다<上>

거기에는「증(證)」이 체계화된다.「증」은 치료자(Healer)가 환자의 신체적 조건과 질병의 진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세우는 치료적 가설(假說)이다. 그것이 곧 처방이다. 그러므로 정확한「증」을 세우는 치료자가 명의(名醫)가 되는 것이다.



권도홍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 전 주부생활 부사장

불로장수, 곧 제왕의 것이라 하여 군약(君藥)이라하며 중약(中藥)120종은 신약(臣藥)이라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보건약이며 하약(下藥)125종은 주로 질병예방과 치료에 쓰이며 좌사약(佐使藥)으로 불리는데 신농본초경에 수록된 약재와 식품의 가짓수를 지구가 1년동안

### 神農本草經에 365가지 食材수록

세 번째 기둥인 본초학(本草學)이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먹거리로 병을 고치는 식료(食療)의 바탕이 된다.

중국본초학의 사원(始源), 곧 꼭대기에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이 있다. 현존하는 신농본초경은 삼황오제(三皇五帝)중의 한 사람인 신농황제의 이름을 빌어 한대(漢代 206BCAD220)에 완성된 원본이 아니라 6세기 경의 도홍경(陶弘景)에 의해 고쳐진 개정판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어쨌거나 신농본초경에 수록된 365종의 약물(藥物)중에 상약(上藥)120종은

에 자전(自轉)하는 횟수, 곧 365가지로 맞춘 의도는 국소적이긴 해도 우주의 운동질서에 맞춘 것이라고 본다면 천명(天命)을 근본으로 삼는 도가(道家)사상의 영향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신농본초경에 수록된 365가지의 약과 먹거리중에는 오늘날 우리들 식탁에 오르는 식재(食材)가 여러 가지 등장한다. 예컨대 상품에는 두릅, 참마, 쑥, 검은깨, 벌꿀, 구기(자), 잣, 오미자, 포도, 울무, 연뿌리가 있고, 중품에는 생강, 취(갈분), 고사리, 해초, 마늘, 파, 미나리, 매실, 염교, 부추, 탕자, 대합(조개),

미꾸라지, 죽순, 치자, 차조기 등 흔히 보아온 식품들인데 하품에는 콩(검은콩), 팔, 도라지, 콩나물(大豆黃卷), 게(蟹), 소금 등이다.

신농본초경은 본초학의 시발이라 규모가 그다지 넓지 않다. 그것이 당(唐)대의 맹선(孟詵)이 편찬한 식료본초(食療本草)에 이르러 확대 집성되는데 부록편인 식성본초(食性本草)와 식의심경(食醫心鏡)은 먹거리로 고치는 질병을 상당수 들고 있다. 그러나 본초학의 완성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명(明1368~1644AD)대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은 1,900종의 식효(食效·식품의 치료효과)를 해설하고 있는데 대판(가로 19cm, 세로 26.5cm) 상·하권 3,0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저록(著錄)이다.

본초강목은 내가 20년동안 통독하다 시피해서 책이 너털너털하게 된 나의 최대의 건강참고서라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60대 초반부터 물려온 여러 가지 질병을 먹거리로 고쳤다면 믿을 수 있겠나? 고혈압, 간경화(초기), 위궤양, 통풍, 당뇨병을 거의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먹거리의 약효와 지속적인 운동(걷기)과 마음가짐(mind peace)의 효과라고 단언할 수 있다.

어떤 먹거리에 어떤 식효(食效)가 있는지 다음번에 쓰겠지만 알고 보면 뻔한 먹거리에 그런 식효가 있는지 잘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음식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약발을 보기까지는 장복(長服)이 필요하다.

나는 한번 작정을 하면 지속연한이 대개 10년을 넘어선다. 내가 세운 프로그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한결같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내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규범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맞춤식이므로 내 글을 읽고 자기 나름의 건강법을 세워야 될 것이다. [\[4\]](#)

### 溫故知新

### 아차성은 아단성이 아니다

수 이북의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만들었으므로...’라는 구절을 들어 온달의 마지막 싸움터를 오늘의 서울 한강 북쪽 아차산성으로 추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삼국사기〉를 비롯한 어느 사서나 지리지를 찾아보아도 아차산성이 곧 아단성이란 대목은 없다.

또한 ‘한수 이북’을 두고 말하더라도 한강 하류인 오늘의 서울 강북만이 아니라 남한강 상류 이북은 모두 해당된다. 즉 온달이 가리킨 한북의 땅은 죽령 이북, 고현 이내의 10군인 오늘날 강원도 대부분과 충북 일부를 가리킨 것이다. 이 가운데 충북 단양군 영춘면



황원갑

- 본회 전문위원
-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은 본래 고구려의 을아단현(乙阿旦那縣)이니, 〈삼국사기〉지리편에 따르면 아단 두 글자가 붙은 지명은 오로지 이곳밖에 없다.

옛 지명이 을아단인 영춘면에 가면 성산이 있고, 그 정상부에 온달이 쌓았고, 온달이 이곳을 되찾기 위해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전설에 따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온달성’이라고

부르는 고구려 산성이 있다.

사적 264호로 지정된 온달성 아래에는 천연기념물 261호인 온달동굴이 있고, 근처에는 온달의 묘라고 전해오는 고구려식 대형 적석총도 있으며, ‘활고개’ ‘진거리’ ‘쉬는돌’ ‘비마루’ ‘대진목’

‘군관나루’ 등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전설이 서린 지명이 많다.

〈삼국사기〉열전에 따르면 졸지에 총수를 잃은 고구려군이 온달의 유해를 군영으로 옮겼다가 도성으로 운구하려고 했으나 영구가 땅에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않았다. 이에 평양 장안성에서 부인 평강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죽고 사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갑시다!”하자 그제야 관이 움직였다고 했다. 관이 움직이지 않았을 리는 없고, 온달의 전사를 원통하게 여긴 군사들의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평양 도심에서 동남쪽으로 22km 지점인 평양시 역포구역 용산리 동명왕릉 인근에 진파리 4호 무덤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것이 바로 평강공주와 온달장군의 합장묘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진구는 395억 원이나 들여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온달장군의 묘까지 재현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좋지 만 있지도 않았던 묘를 만들어 우리 스스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날조하는 일은 삼가야겠다.

아차산성은 온달이 전사한 아단성이 아니다. [\[4\]](#)

〈축〉大韓言論 창간 36주년

Global Power Leader

www.kosep.co.kr

더 넓고 큰 세상을 향한 도전!

당신이 함께 하기에 든든합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정부가 추진중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기술개발 운영** | 보유기술이전, 협력연구개발, 산학협력 중소기업지원, 이업중중소기업협의회, 현장기술 개발, R&D 실증센터 시설 지원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사업 등

**경영관리·혁신** | 성과공유제, 중핵기업 육성, 품질·환경·안전보건 인증, 산업재산권 취득, 해외규격인증, 벤처기업인증, 신기술인증, PPM인증 등

**구매·판로개척** | 국내외 전문전시회, 시장개척 수출로드쇼, 해외시장조사, 홍보물 제작,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관, 제품 순회설명회, 금융지원사업 등

**인력교류 지원** | 퇴직 전문인력 파견,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해군 및 공군전역 전문인력 파견, 산학연활용 맞춤형 교육, 산학협력 중소기업 교육훈련사업 등

# 계급투쟁 부각 영상미 없는 ‘설국열차’

영화의 도전이 거침없고 무섭다. 특히 극장에서 상영하는 상업영화까지 사회 부조리나 정치적 모순, 경제적 불평 등에서 이데올로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나 이슈를 직설적으로 토해낸다.

오락에서부터 출발한 영화가 달콤한 로망스나 실감나는 액션을 거쳐 인간의 존재를 탐색하는 예술영화의 영역을 넘어 이제는 이념을 포함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파괴력 넘친 매체로 군림하고 있다. 영화 특히 상업영화의 진화 속도가 눈부시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를 보고나서 이 같은 이념영화가 관객의 호응을 폭발시킨 원인이 우리사회의 불평등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감독의 사회변혁을 꾀한 의도적 접근인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내 두뇌를 고문했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양극화의 계급투쟁을 처절하게 그린 이념영화다. 영화가 이념을 내용으로 다룰 수도 있겠지만 ‘설국열차’처럼 상류층이나 하류층 모두에게 희망 대신 절망을 안겨주고 공존 대신 공멸로 끝맺음을 한 이 영화는 관객에게 감동은커녕 허망함을 남겨 주었다는 점에서 영화 뒷맛이 개운하지 못하고 짹짹하다.

프랑스의 원작만화를 텍스트로 했다는 ‘설국열차’는 지구 빙하기를 소재로 다뤄 흥미롭지만 플롯이나 극의 전개는 단순 되풀이여서 영화적 재미는 없는 편이다. 연출도 감독의 의도된 계산인지 모르지만 지나치게 양극화 된 계급투쟁에만 몰두하는 바람에 영상미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계급투쟁의 이념을 다룬 영화라고 하더라도 상대계층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눈곱 만큼의 연민도 없이 서로가 상대를 죽여야만 생존하는 서바이벌 게임으로 시종한다는 점에서 살벌은 있어도 감정의 느낌은 없다.

나는 신촌의 새로 단장한 복합극장에

서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왜 관객이 몰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두 번째는 이영화의 감상평은 영화적 접근보다 정치사회적 해석으로 해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 영화 자체가 영화미학보다 오로지 계급갈등과 투쟁에만 매진했기 때문에 영화적 접근이나 해석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개봉 10일 만에 500만 명의 관객몰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제작비 450억원을 투입한 대작에 배급사 CJ E&M의 돈 배팅 마케팅과 엄청난 스크린 배급물량, 그리고 이름 있는 할리우드 배우출연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천문학적 제작비를 투입하고 유명감독을 기용하고도 흥행에 실패한 영화들이 많았다. 보고나면 허망한 이 영화가 살인적인 관객동원에 성공한 원인을 나는 ‘팬덤(fandom)현상’(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광적인 지지)으로 진단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심화된 불평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불평등의 양극화는 철근구조물처럼 구조화 되어 우리 사회를 잡아먹는 괴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경제민주화를 국정 어젠다로 내걸었지만 길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다. 그래서 이 경제 불평등이란 시민들의 잠재의식에 영리한 봉준호 감독이 계급투쟁이란 기를 부은 것이다.

‘설국열차’의 흥행몰이는 영화가 재미있어서, 내용이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이슈의 폭발에 재빨리 편승한 것이다. 일부 좌파적 이념에 젖은 사람은 이 영화의 계급투쟁에 열광할 수도

## 영 화 평



### 김 화

·본회 전문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다. 그래서 이 영화의 흥행돌풍을 나는 팬덤으로 진단한 것이다.

이 영화는 빙하기로 변한 미래를 가상으로 전개된다. 내년인 2014년 7월 1일 77개국 정상들이 모여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합의하여 CW7이라는 화학물질을 대량 살포한다. 그 부작용으로 지구는 흰 눈으로 얼어붙는 빙하기를 맞이하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사멸하고 오로지 1년을 주기로 정거장 없이 무조건 달려야만 하는 기차에 탄 사람들만이 유일한 생존자들이다. 달려야만 하는 기차는 엔진의 창시자이며 이 기차의 절대 지배자인 월포드(에드 해리스)의 왕국이다.

기차의 앞 여러 칸에는 상류층이 탑승하면서 그들을 위한 정원, 나이트클럽, 고급식당 등이 갖춰져 있어 삶의 윤택함을 누린다. 반면 뒤 칸에는 하류층이 탑승했는데, 그들은 바퀴벌레로 만든 단백질 블록을 먹으며 겨우 연명하면서 노예같은 비참한 생활을 한다. 처음 탄 열차의 칸에 따라 인간의 신분이 결정된다. 부의 세습, 권력 세습에 대한 통렬한 풍자다. 지옥 같은 노예생활을 견디지 못한 뒤 칸의 하류층 사람들은 커티스(크리스 에번스)를 리더로 혁명을

일으킨다. 열쇠를 가진 송강호를 만나 앞 칸 상류층 군대와 혈투를 벌이면서 한 칸, 한 칸을 점령해 간다.

이 영화에서 감독은 빈곤한 자들의 혁명을 시도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능력 있는 감독으로 인정되고 있는 봉준호는 시대의 흐름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지금은 어느 한 계층의 혁명이 성공할 수 없는 시대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시민혁명은 곧 반혁명의 역풍을 맞았다. 더욱이 감독이 꼭 알아야 할 지식은 중국과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와 결혼했으며 한국 프랑스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신부를 맞이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지금은 이념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념의 혼재시대다. 그래서 혁명은 빛을 잃는다.

한 계급이, 한 계층이 전체를 지배할 수도 없다. 혁명의 동기가 있더라도 소통과 타협을 통해 공존을 모색해야만 하는 시대다. 지금은 계층의 이익을 초월한 소통의 시대요, 융합의 시대요, 협업의 시대요, 동반의 시대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현실은 이런 사회통합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의 부패와 무능 때문이다. 한국은 정치가 경제 등 모든 것을 지배한다.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경제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양극화의 유형은 괴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2013년의 한국에서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나온 것이다.

영화에서는 혁명도 성공하지 못하고, 두 계층의 공멸로 끝난다. 기차의 탈선 전복으로 모두 사멸한다. 다만 아가씨와 소년 둘만이 기차를 탈출, 햇빛에 빙하가 녹는 생명의 지점을 찾아간다. 인류에게 희망의 불씨를 남긴 것이다. 바로 이점이 내가 이 영화에서 발견한 유일한 위안이다. [4]

## 수필

# 작은 즐거움들



### 한영탁

·본회 논설위원  
·전 세계일보 편집부국장  
·수필가

치르고 났다. 주치의는 건강을 찾는 데는 마음의 평온이 으뜸이라고 당부한다. 하지만 주치의의 일들은 결코 평온을 가져다주는 것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 평생 사회적 환경에 민감하게 긴장된 삶을 살아온 저널리스트 생활 탓에 언제나 현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길들여진 때문인 것 같다.

열혈시대 술잔을 가운데 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대화에 몰입하곤 했던 벗들은 하나 둘 사라져 갔다. 남아있는 몇몇도 건강이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멀어져 버렸다. 좋아하던 술을 끊으니 그것이 주던 삶의 활력과 멋도 사라져 잃어버렸다. 하

긴 나는 술을 즐길 때도 술을 마시는 그 자체보다는 술자리가 주는 순도 높은 대화와 우정에 더 취하는 편이 었지만.

술자리 대신에 요즘 내가 찾아낸 소박한 즐거움은 독서와 헌책방 순례, 영화 감상, 그리고 가까운 둘레길 걷기 따위다. 지난 몇 달 동안에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강(江)’, 도스토옙스키의 ‘악령’, ‘죄와

벌’, 고골의 ‘삐페르부르크 이야기’ 등 러시아 문학 작품에 빠져 보았다. 이병주, 이문열, 김원일 등 우리 작가들의 대표작 여러 권도 다시 읽었다. 얼마 전 절품된 이병주의 ‘지리산(智異山)’ 일곱 권 전집을 어느 헌책방에서 발견

했을 때는 참 반가웠다. 옛 신문사 동료였던 박재삼 시인이 쓴 희귀한 수필집 ‘울밑에선 봉선화’를 찾았을 때도 그랬다.

함께 갈만한 친구가 없어서 영화관도 거의 혼자 찾는다. 최근 화제가 된 영화, ‘레 미제라블’, ‘링컨’, ‘안나 카렐리나’, ‘위대한 캐츠비’, 그리고 비포(before) 3부작의 완결편 ‘비포 미드나잇(Before Midnight)’도 보았다. 서울에는 광화문의 ‘시네 큐브’와 낙원동의 ‘서울 아트 시네마’ 같은 예술영화 전문관이 몇 군데 있는데 그곳들도 나의 단골 영화관이 되었다. 그곳에서는 일반 극장에서는 상연하지 않는 실험영화, 독립제작 예술영화를 볼 수 있다.

정동에 있는 ‘청춘극장’과 낙원동에 있는 ‘실버극장’이란 이름의 노인 전용 영화관도 요즘 내가 즐겨 찾는 곳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단돈 2,000원의 입장료로 흘러간 명화들을 보여준다. 덤으로 커피와 팝콘도 대접해 준다. 고령화 사회 속에 소외된 노인들에게 작

15면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고 우울하기만 한 것 같다. 불황으로 기업들은 허덕이고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해 허송세월 하는 실의(失意)의 젊은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건설경기가 쇠퇴하면서 건축업계가 도산에 허덕이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사라지고 치솟기만 하는 셋집 값에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심각하여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한다.

사람들은 총선과 대선, 두 차례의 큰 선거가 끝나면 무언가 숨통을 터줄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잠시에 그치고 혼탁하게 소용돌이 치는 저질의 소모적 정쟁(政爭)만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거리에서나 전철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엔 짙은 어둠이 덮여 있다. 모두가 지친 표정들이다. 어께가 축 처져 있다. 발랄하고 밝은 얼굴은 보기 어렵다. 이런 암울하기만한 나의 시선은 고회를 넘긴 내 나이의 우수(憂愁)가 더해진 탓인지도 모르겠다. 뜻밖에 죽음과 마주한 암 수술이라는 큰일을

# 영화 ‘설국열차’와 소설 ‘28’의 극한여행

환경 재앙의 예고인가? 올 여름 날씨 변덕은 유별나다. 중부지방에 집중된 가장 긴 장마. 장마 뒤 폭염은 울산 일부지역의 수은주를 40도까지 끌어올렸다. 찜통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고 열대야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나이 들수록 체온조절능력이 떨어지니 더위에 쉽게 지친다. 한반도는 거대한 ‘폭염열차’다. 더위를 잠시 시키고 시간도 보낼 겸 빙하기 ‘설국열차’에 탑승했다.

‘불별’이라는 가상의 도시 ‘火陽’에서 펼쳐지는 28일간의 이야기를 담은 정유정의 장편소설 ‘28’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잠시 잊게 해주었다. 영화와 소설의 공통분모는 환경과 재난. 가상의 극한상황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그렸다.

## “당신은 어느 칸 승객인가?”

개봉 10일 만에 관객 500만 명 탑승. 천만관객 동원 향해 흥행질주. 영화 리뷰기사가 흥미를 유발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광화문 부근에 점심 약속이 있었고, 저녁 약속까지는 시간이 남아 귀가했다가 다시 나올까 망설이다가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영화관을 찾았다.

봉준호 감독, 송강호 주연이란 포스터가 아니었으면 할리우드영화로 착각할 뻔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출연에 자막처리가 외화와 다를 바 없다. 열차 보안설계가 남궁민수 역을 맡은 송강호는 30분여 분 지나서야 등장하고 한국 배우는 그의 딸 요나역의 고아성과 둘 뿐이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세계 정상들의 합의하에 ‘CW-7’라는 화학물질이 대량 살포되고, 그 부작용으로 지구가 공포 열어붙는다. 마지막 생존자들을 태운 설국열차가 궤도를 끝없이 달리며 이야기는 펼쳐진다. 맨 꼬리 칸은 춥고 배고픈 승객들로 바글댄다. 양갱 비슷한 단백질 조각을 배급받아 연명하는 빈민굴이다. 앞 칸으로 갈수록 객실은 호화롭다. 식물이 자라고 부유층 자녀들은 공부를 하고 어른들은 술과 마약으로 환락에 빠진다.

제일 앞 칸은 기차의 심장인 엔진을 개발한 절대 권력자 월포드(에드 해리스)가 탑승해 체제의 양극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열차를 탈 때 처음 정해진 칸이 영원한 족쇄로 작용하는 자본 체제다. 체제비판의 메시지를 담으려는

의도가 깔렸다. 당신은 어느 칸 승객인가?, 영화는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꼬리 칸의 젊은 지도자 커티스(크리스 에번스)는 긴 세월 준비해온 폭동을 일으키며 열차 전체를 해방시키려 한다. 메이슨 총리(틸다 스윈턴)는 “제자리를 지켜! 분수를 알아야지. 너희들은 영원히 꼬리 칸에 머무는 게 운명이



인류 마지막 생존지역 ‘설국열차’ 포스터. <네이버 캡처>

야!”라며 외치며 방어선을 긋는다. 한 칸씩 앞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흥행 요소가 가미된다. 잔인한 폭력과 무차별 살육, 정신적 지도자 길리엄(존 허트)과 젊은 지도자 커티스의 갈등, 인간애와 모성에 등 SF와 액션, 드라마적 요소가 얹혀 볼거리를 제공한다. 450억 원이라는 거대 제작비를 투자했으니 관객의 구미를 외면할 수 없었을 터.

혈투를 벌이며 전진한 커티스는 절대 권력자 월포드와 대면한다. 질주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긴장감은 떨어지고 대사는 지루하다. 관객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은 뒤 파괴와 탈출로 결말짓는다. 17년 째 지구를 돌던 설국열차는 설원에서 산산조각 나면서 체제 양극화의 거창한 담론은 허망하게 실종된다.

다. 아마 살아온 세월만큼 경험의 연륜이 두터워진 덕택일 게다.

요즘 내가 발견한 또 다른 작은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 도어에 적힌 서정시를 읽는 것이다. 늘 소란하고 봄비는 인파 속에서도 짙막하면서도 상큼한 한 편의 시를 읽으면 일상에 지친 마음에 한 줄기 청량한 바람을 만난 것 같다. 누가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곤한 시민들에게 시를 선물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지 고맙기 그지없다. 언제나 목에 힘을 주고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고만 들던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 시민의 정서를 배려하는 봉사정신을 갖기까지 진화해간 것이 가늠하고 기특하기 만하다. 뭔가 세상이 차차 더 잘 되어갈 조짐 같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칼럼니스트

살아남은 요나와 소년의 시선에 북극곰이 들어온다. 빙하기 이후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음을 상징한다.

## 반려동물 거리에 넘치면?

정유정의 장편 ‘28’은 ‘불별’이라는 수도권 가상의 도시 ‘火陽’에 원인불명의 ‘인수공통전염병’이 빠르게 번진다. 사람과 개가 똑같



가상의 도시 ‘화양’에 번지는 전염병을 다룬 정유정의 장편소설 ‘28’

이 눈이 충혈 되면서 급사하는 ‘빨간 눈 괴질’이다. 도시는 순식간에 무저갱(無底坑)으로 변한다. 정부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시를 봉쇄한다. 도시를 벗어나려는 시민과 저지하는 군과의 대치는 광주의 5월을 떠올리게 한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 소수의 희생은 과연 옳은가에 대한 근원적 의문을 제기한다.

시민들은 죽음을 눈앞에 둔 대재앙의 소용돌이 속에서 분노하고 절망하며 생존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몸부림친다. 작가는 짧고 강렬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이 넘친다. 등장인물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얹혀 관계를 이어가는 구성이 치밀하다. 개의 관점에서 인간의 폭력성을 우화적으로

비판한다.

작가정신 또한 치열하다. ‘작가의 말’에서 밝혔듯이 초고를 끝내고 수정을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문제에 봉착한다. 지리산에 들어가 초고를 엮어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썼다. 대학병원 수의학과와 응급의학과 교수, 도청 방역과 수의사, 수사관, 특전사 장교, 119구조대원, 신문기자 등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리얼리티를 살렸다.

저자는 구제역으로 수백만 마리의 소와 돼지들을 생매장 하던 모습을 보고 작품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만약 소나 돼지가 아닌 반려동물, 이를테면 개와 인간 사이에 구제역 보다 더 치명적인 인수공통전염병이 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모티브로 삼았다.

올해부터 시행된 ‘반려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잃어버릴 때 주인을 쉽게 찾아주고 유기견을 줄이자는 취지다. 7월말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려고 했으나 등록률이 저조하여 과태료 부과는 내년 초로 미뤘다. 현재 400만 가구 1000만 여 명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한다. 핵가족화, 1인 가족과 노령층의 증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게 뻔하다.

반려동물로 등록하려면 동물병원에서 등록서류를 작성하고 마이크로 칩을 개 몸속에 넣거나, 목걸이에 전자태그를 걸든지, 연락처를 새긴 ‘인식표’를 달아야 한다. 일부 동물단체에선 전자 칩의 유통기한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다. 칩을 삽입하여 바코드처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행정편의 발상이자 인간중심적이다.

동물 사랑에도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애지중지 키우다가 늙거나 병들면 슬그머니 버린다. 한 해 버려지는 동물이 1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니 공존의 가치가 무의미 해진다. 자연과 공존한다면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유기견이 거리에 떠돌면 소설 속 가상의 전염병 같은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으니 소설 ‘28’은 재앙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 [본문으로]

## 14면에서 이어집니다.

은 위안이라도 주려는 당국의 배려인 것 같아 고맙게 여긴다. 나는 그곳에서 젊은 시절 우리를 감동시켰던 ‘카사블랑카’, ‘애수(Watwerloo Bridge)’, ‘시민 케인’, ‘폭풍의 언덕’, ‘에덴의 동쪽’, ‘자이언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지상 최대의 작전’, 그리고 ‘나발론’ 등 꽤 많은 옛 명화를 다시 보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인생의 황혼 길에 이런 흘러간 명화를 다시 보면 젊은 시절의 추억이 가슴을 적신다.

그리고 고전 문학작품이나 영화를 다시 대하면 젊은 시절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쳤던 보다 심원한 뜻을 발견하는 때가 많아 내 자신도 놀라게 된

다. 일부 잔재하는 시인들이 지하철시가 너무 유치하고 덜된 것이라고 불평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나에게는 남들이 뜻도 알 수 없는 관념적인 시를 내놓고 자기도취에 빠진 그들의 시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쉬운 시가 더 좋다. 특히 지하철역의 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나는 홍제천변을 걸으면서 색다른 작은 즐거움을 누린다. 한강물을 펄프로 끌어다 흐르게 한 개울가 산책길을 따라 내부순환도로의 교각(橋脚)들이 늘어서 있다. 개울을 끼고 거의 2km쯤 이어져 띄엄띄엄 서 있는 그 교각들에 복사한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 30-40점이 걸려 있다. 홍제천이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의 야외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프린트 기술이 발달해서 복사판 그림의 상태도 원화 못지않게 훌륭하다. 냇물이 시원하게 흘러가는 시냇가를 걸으면서 마네의 ‘풀밭 위의 식사’와 모네의 ‘인상, 일출’과 ‘수련(睡蓮)’ 그리고 르노와르의 ‘목욕하는 사람들’, ‘벚놀이’ 등 명작을 실물대로 감상한다. 그것은 나의 작은 즐거움 목록을 하나 더 보태준다.

실용주의, 물질주의가 판쳐온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아직은 작으나마 시민의 문화 향수(享受)에까지 마음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쌓여서 세상이 좀 밝아졌으면 오죽 좋으랴. [본문으로]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상임고문 素露 이혜복 선생이 지난 8월 1일 오후 3시 별세했다. 향년 91세. 8월 5일 오전 7시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됐다.

1923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난 고 이혜복 상임고문은 중앙고를 졸업하고 보성전문(고려대)상학과 2년 재학 중 일본군 학도병으로 끌려가 8·15 직후 소련군 포로수용소를 탈출해 귀국했다. 귀국 후 1946년 민주일보 사회부기자로 언론계에 입문, 자유신문 경향신문 사회부를 거쳐 서울신문 민국일보 동아일보 사회부장을 역임했다. 동아일보에서는 편집부국장, 동경

## 이혜복 본회 상임고문 별세

지국장을 지내고 KBS로 옮겨 해설위원실 주간, 방송연구원장을 지내고 정년 퇴직했다.

경향신문 재직 시는 법조계를 출입하며 공산당이 관련된 '정판사 위폐사건'을 보도 했고 6·25전쟁 때는 경향신문 사회부 종군기자로 국군 1사단(사단장 백선엽)의 평양 탈환 기사를 특종 보도했다. 고인은 지난해 구순 축하연에서 "대동강에서 '이혜복 특과원 발' 기사를 지프에 싣고



고 이혜복 고문

다시 평양으로 달려가 북한 동포에게 나눠주던 당시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한 바 있다.

언론사를 떠나서는 언론 중재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언론인회 회장을 5대에 걸쳐 10년간 역임했고 재임 시는 10억 복지자금 유치 등 대한언론인회의 기초를 다졌으며 2010년 7월 대한언론인회 산하에 6·25참전언론인회를 창립, 이 모임 고문직을 맡아왔다.

2012년 11월 대한언론인회가 고인의 言論一路를 기리기 위해 펴낸 <종군기자 사회부장 빛나던 이름 이혜복>은 평생을 신뢰 하나로 강직하게 살아온 고인의 생애가 진솔하게 투영돼 있다.

금성화랑 무공훈장을 받고 정민문화상, 방송해설상, 서울언론인클럽 언론상(한길상) 등을 수상했다. 부인 방봉세 여사와의 사이에 2남 1녀가 있다.

대한언론인회는 8월 2일 오후 4시 고인의 빈소에서 향원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을 갖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국문]

이 어찌된 일이십니까.

바로 지난해 여름 선생님의 구순 축하 잔치를 기쁜 마음으로 누리고 백세 축하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에게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지난 6월 선생님의 아호를 딴 모임 소로회에는 정정한 모습으로 참석하셨고 같은 달 KBS의 TV 자서전에서 6·25 전쟁때 국군 1사단의 평양 탈환을 특종보도한 당시의 상황을 느낌하고, 생생하게 증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샌프란시스코 공항 항공기 사고로 한주 방송이 못 나가고 그 다음 주의 2회 방송에서 선생님은 당시 서울신문의 신상현 기자, 동아일보의 남시욱기자 이야기를 오늘의 일처럼 또렷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두차례에 걸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자서전을 선생님은 병상에 누워 계셔서 안타깝게도 보시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못한 후학이 그렇게 강조하던 말씀을 왜 새겨 듣지 않으셨습니까.

첫째 넘어지지 마십시오, 둘째 감기 들지 마십시오, 셋째 무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노래 부르다시피 한 말씀을 왜 외면하셨습니까.

무엇보다 무리하지 마셨어야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하늘나라에 환송하려 합니다. 선생님은 아름다운 가정을 남기셨습니다.

## 언론계에 남기신 크나큰 발자취

弔辭 素露 이혜복선생님 영전에



고 이혜복 본회 상임고문 빈소에서 조사를 하는 신우식 고문.

지난해 구순축하 잔치에서 우리 함께 불렀던 전영택목사 작사 찬송가 559장 말씀입니다.

"사철에 봄 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 보다 더 '즐거운 동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사모님 방봉세 권사님, 2남 1녀와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외손자, 증외손녀까지 바로 낙원을 남겨두고 가셨으니 얼마나 흐뭇하십니까.

소로선생님. 선생님이 언론계에, 한국 언론사에 남기신 발자취를 우리는 역력히 기억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종군 기자 사회부장, 빛나던 이

름 이혜복>이 출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선생님의 언론인생 회고록과 후배 언론인들의 회고담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진 한 장은 물론 신문기사 스크랩을 꼼꼼히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2012년 한해 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회상해 보니 선생님은 하늘나라 가실 준비를 너무도 완벽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광복 다음해인 1946년 민주일보로 언론계에 투신한 선생님은 중앙신문 자유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 민국일보 동아일보를 거치는 동안 세 신문의 사회부장을 지내셨고 서울신문과

동아일보의 편집부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동아일보의 도쿄 지국장, KBS의 해설주간,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언론 외길의 일생을 걸으셨습니다. 대한언론인회 역사에서 소로선생님을 떼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다섯 번에 걸쳐 회장을 연임하셨습니다. 이혜복 선생님의 회장시대는 그야말로 대한언론인회의 중흥기였습니다. 오늘의 대한언론인회는 이혜복회장시대에 다져진 기초위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생님은 상임고문으로서 대한언론인회의 발전을 위해서 크고 작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소로 선생님.

치매예방을 위해 영어 회화공부를 하시던 선생님. 매일 한시간 산책을 하시고 아령으로 근육운동을 하시던 선생님.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니 다시 뵈올 그 날까지 아픔이 없는 그 나라에서 평안 하소서. 대한언론인회는 지금 고 이혜복 상임고문의 언론인장을 엄숙히 거행하고 있습니다.

향원기 회장을 비롯한 6백여 회원의 마음을 담아 많은 회원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평안하소서 [국문]

2013년 8월 2일  
대한언론인회 고문  
신우식 삼가 드림

## 6·25전쟁 생생한 증언

본회간행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

### 신간소개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 6·25 참전 언론인들이 63년 전 국가 누란의 위기에서 참전해 나라를 지킨 생생한 증언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제 1편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제2편 '전쟁터를 누빈 종군기자들', 부록 순으로 편찬된 이 책은 향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과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축간사와 박기병 6·25 참전언론인회 회장의 발간사를 시작으로 6·25 참전 언론인 23명과 6·25 종군 기자 10명의 전쟁수기가 현장감 있게 기술돼 있다.

향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축간사에서 "6·25 참전언론인들이 펴낸 이 생

생한 참전기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고귀한 자료(史料)로 널리 읽히고 전승되어야 할 증언이자 군 정훈교육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국방부장장관은 축간사에서 "웬은 총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언론인으로서 사회정의 실현과 국가발전을 위해 사명을 다해 오신 6·25 참전언론인들의 참전 수기는 국가의 안보역량 강화에 있어 그 어떤 무기체계보다도 강한 정신적 힘이 될 것"이라고 이 책 발간이 갖는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대표 집필자로 6·25 당시 춘천 대첩에 참전했던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은 발간사에서 "북한은 최근에

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3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를 극도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일부 국민들 중에서는 북측의 대남전략에 편승해서 6·25 전쟁을 북침전쟁이라고 왜곡 선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릇된 안보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은 통탄을 금할 수 없게 한다"고 개탄했다.

'아, 어찌 잊으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꿈만 같은 평양점령 작전 참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결사항쟁선', '17세 소년 학도병의 6·25 전후방 3년', '학도병으로 다부동 낙동강 전투 참가', '생사 넘나든 백석산 전투', '17살 소년병으로 최전방 배치', '해병중위로 동해안을 사수하다', '해병대와 나', '안간전투에서 구사일생' 등 6·25 당시 생사를 넘나들며 나라를 지킨 참전 용사들의 열사 구국의 정신이 현장감 있게 살아 숨쉬고 있다.

또한 6·25 당시 전쟁터를 누비며 종군했던 종군기자들의 생생한 종군기는

'잊지 못할 문산 탈환의 감격', '적도(敵都) 평양이 무너지던 날', '생사(生死) 넘나든 6·25종군 취재', '인천상륙작전 성공시킨 육군17연대', '국군 평양 탈환전과 특종보도', '포탄 세례 뚫고 특종전쟁', '로이터 통신 기자로 종군하다', '6·25를 종군한 유일한 방송기자' 등 6·25 당시의 전황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까지의 전투현장이 생동감 있게 기술돼 있어 6·25 전사를 이해하는데 값진 사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한국 언론사 연구에 해박한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6·25 전쟁과 종군기자' 제하의 기고문에서 광복 후 우리나라 기자의 종군활동을 상세히 고증해 책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9월 10일 오후 5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태봉출판사 발행·국판 396쪽·값 18,000원> [국문]

〈축〉大韓言論 창간 36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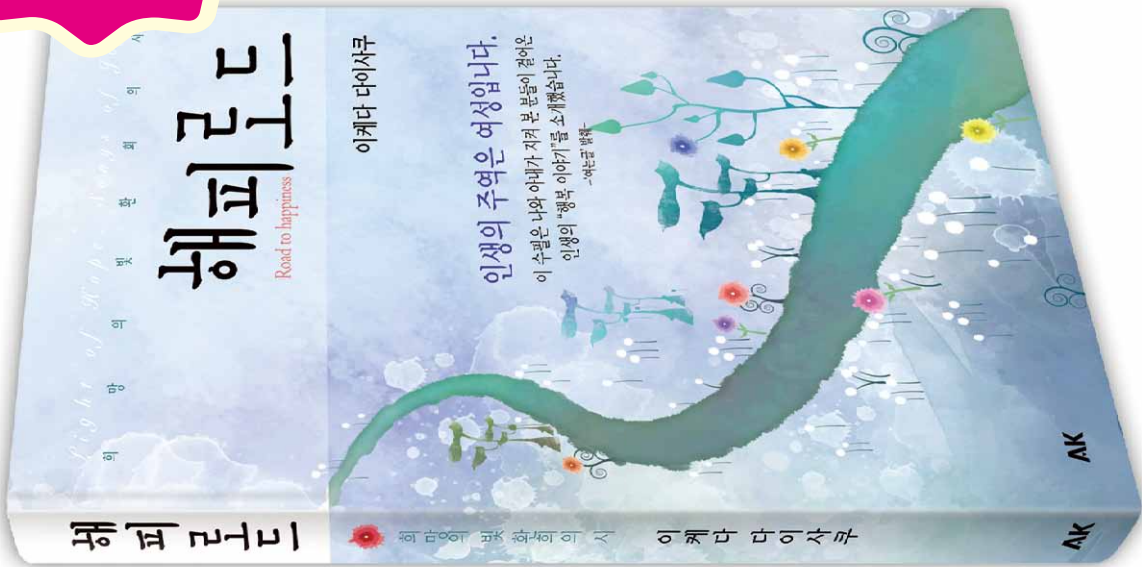
절찬  
판매 중

Light of Hope, Songs of Joy

희망의 빛 환희의 시

# 해피로드

Road to happiness



행복의 정원을 가꾸는 이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축축히 스며들어  
행복의 꽃이 피어납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인가의 결승점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자세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본문 중에서-

## ◆추천사◆

“나와 가족의 건강이야말로 행복이라는 말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진리입니다.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삶의 행복을 다시금 돌아보고 깨닫게 해주는 책.”

- 이택섭, 성모의원 원장

“사춘기 아이들을 가진 부모와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언제나 고민합니다. 인정하고, 지켜보고, 다가서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꼭 와닿습니다.”

- 김현지, 선린중학교 교사

이케다 다이사쿠 지음 / 값 10,000원 / 208쪽

(주)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1-29 | 전화 02-702-7963~5 | 팩스 02-702-7988 | [www.amusementkorea.co.kr](http://www.amusementkorea.co.kr)

YES24(<http://www.yes24.com>) | 인터넷 교보문고(<http://www.kyobobook.co.kr>) | 인터파크 도서(<http://book.interpark.com>) | 알라딘(<http://www.aladin.co.kr>) | 온라인 서점 및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신아일보 발행인 겸 회장 연임



김명수(경향사우회 회장) 회우= 최근 열린 신아일보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발행인 겸 회장으로 연임됐다. 김명수 회우는 또 '신아일보 재도약의 원년'을 다짐하며 자매지 시사 월간지 '신아@플러스'를 창간했다.

## TV조선 출연 북한문제 대담



도준호(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본회이사= 지난 8월22일(목) 오후 1시 TV조선 뉴스원 프로에 출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관한 대담을 가졌다. 도이사는 그동안 TV조선 북한문제와 관련한 프로에 10여 차례 출연해왔다.

## 경제풍월 창간 14주년 기념 리셉션



배병휴(경제풍월 발행인) 회우= 8월 27일 하오 5시 30분 경제풍월 창간 14주년기념식과 함께 제4회 한국기업가정신 대

상(수상자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김승호 보령제약 그룹회장)을 시상했다.

## 노태우 정권 참모들과 대토론



손주환(전 서울신문 사장)회우= 서울대 강원택 교수 등 13명의 교수들의 학술서 '노태우 시대의 재평가' 논문집(2012년 8월 발행)을 난데 이어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 중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했던 참모들과 세미나 형식의 토론회를 가졌다.

## 케이블 UHD시범방송 행사



양희부(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회장)회우= 7월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방송회관에서 '케이블 UHD(초고화질 TV) 시범방송' 스위치 온 행사를 가졌다. 세계최초로 5개 복수 유선방송사업자를 통해 상시 시범방송에 들어간

## 회 우 동 정 가나다순

UHD는 HD(고화질TV)보다 화소수가 4배나 많다.

## 뉴스앤피플 홍보책자 발간



여영무(뉴스앤피플 닷컴 대표)회우= 지난 8월 20일 뉴스앤피플 홍보책자를 발행 했다. 모두 6쪽 으로 된 이 홍보 전단은 뉴스앤피플의 보도논평 기본원칙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청화대 연설 장면, 주요 편집제작진 명단, 왜 뉴스앤피플 인가 등이 실려 있다.

## 독립유공자 초청 청와대 만찬에 참석



조성국(전 코리아헤럴드 편집위원)원로회우= 지난 8·15일 저녁 8·15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회 회원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영빈관 초청 만찬에 참석.

## TV조선 출연 경색정국 해법 제시



최재욱(전 환경부장관·전 국회의원)회우= 지난 8월26일(월) 오후5시40분 종편 TV조선 시사프로 '황금편지'에 출연, 경색정국의 전망과 해법을 제시

## 동아일보 사우회 특강



홍용수(NSI자산관리연구회 회장·전 한국경제 논설위원)회우= 9월 6일 오전 11시 동아일보 충청로 사옥 2층 동우회 사무실에서 '노후 생활설계 및 재테크' 주제로 특강을 한다.

## 서울 강북구청장 표창패 받아



홍원기(전 한국일보 감사)본회 회장= 8월 14일 오후 4시 박경수 서울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 복지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표창패를 받았다.

## 건강정보

## '동남아병' 만연 경계

### 해외여행 예방접종 꼭 받아야

전두환 전 대통령과 외모가 비슷하다 해서 오랫동안 곤욕을 치렀던 화제의 탤런트 박용식 씨가 '유비저병' 유행지역인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 전신무력감과 발열, 배뇨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병세가 악화돼 최근 숨졌다.

### 치사율 40% '유비저균'

이병이 문제가 된 것은 한 탤런트의 죽음뿐 아니라 최근 해외여행객의 35%가 동남아를 다녀오고 있는데 이들 중에 '유비저병' 뿐 아니라 '뎡기열', '치군구니아열', '말라리아' 등 각종 '동남아병'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비저균'은 설치류, 토양과 물, 피부상처 등을 통해 감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사람과 포유동물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켜 지난 2010년 우리나라에서는 제 4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병이다. 작년에 한건도 없던 것이 올해는 3건이나 발생했고 한명이 사망한 것이다. 이 병은 폐렴과 패혈증을 동반하는 이른바 열대성 폐질환으로 치사율은 40%에 이른다.

### '뎡기열' 작년보다 두 배

현재 동남아 전역이 모기가 옮기는 '뎡기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태국에선 무려 6만7천명, 필리핀에선 4만 5천명이 뎡기열에 걸렸고 우리나라에서만도 최근 석달 간 60명이 넘었는데 이는 작년 같은 때보다 두 배가 늘어난 숫자이다. 뎡기열로 태국에선 70명, 필리핀에선 190명이 숨졌다. 이렇게 뎡기열이 극성을 부리는 데는 우리 관광행태가 많이 달라진데도 원인이 있다. 즉, 대도시관광 위주에서 정글이나 농촌체험,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이 다변화되면서 해외전염병의 종류가 다양해진 것이다.

뎡기열은 예방접종약이 없다. 그리고

처방약도 없다. 열이 심한데도 그 열을 떨어트릴 방법이 없다고 한다.

### 주범은 '흰줄숲모기'

뎡기열의 주범인 '흰줄숲모기'는 살인진드기보다 더 무서운 곤충이다.

병에 걸리면 갑작스런 고열이 3~5일간 지속되고 근육통, 두통, 요통, 관절통에 몸 전체에 붉은 반점이 생기며 심해지면 '뎡기출혈열', '뎡기쇼크증후군'으로 발전, 불안증과 식은땀을 흘리고 늑막과 복부에 물이 차 부풀고 장출혈로 혈변을 보게된다.

치사율이 40~50%로 그야말로 죽기 살기가 반반이다.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 다만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예방주사를 맞아야한다. 그러나 평소 건강한 사람은 감기초기처럼 병이 왔다가 1주일정도 지나면 괜찮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무서운 모기가 제주도에도 들어왔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농산물에 붙어 들어왔든가 아니면 모기알이 묻어 들어왔든가 하는 것이다.

앞으로 전국으로 번질까 큰 걱정이 아닐수 없다. 그래서 동남아여행을 떠나려면 해외질병 정보센터(전화: 043-719-7144)에서 예방주사 접종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떠나는 것이 좋다. 아프리카 여행도 마찬가지다.

###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

'유비저병'에서 폐렴에 대해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폐렴은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병이다.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 중구 보건소 김신원 건강관리 과장은 "65세 이상 노인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균혈증 발생 시 사망률은 60%, 수막염일 경우 사망률이 80%에 이른다"고 밝히고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

종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65세 이후에 접종했을 경우 재접종하지 않아도 되나 65세 이전에 접종을 했을 경우엔 5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접종비용은 무료이며 접종희망자가 거주하는 보건소에 주민증을 지참하고

가면 접종이 가능하다. 일반 병원에서는 1회 접종에 5만원 정도이며 접종약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약이라고 말했다. 접종 시기는 해당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국문]

이보길 편집위원

## 9월 건강포럼 14일 개최

### '건강한 세포가 노화 막는다'

대한언론인회와 한국성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열고있는 '건강포럼'이 하반기 강의를 시작한다. '건강포럼'은 폭염으로 지난 8월 한 달간 쉬었다.

- 개강일시: 2013년 9월 14일(토) 오후2~3시
- 강의제목: "건강한 세포가 노화 막아"
- 연 사: 임춘희(건강전도사)
- 장 소: 을지로입구 이윤수병원 홀

### ▶ 저서 보내주신 분 ◀

김진배 회우= '두 얼굴 헌법' (2013년 6월 15일 폴리틱스 발행·값 26,000원)

박동선 회우= '玄宙 박동선 서집' (2013년 7월 발행), '삼거벽' (박동선 수필집, 2013년 6월 도서출판 교음사 발행·값20,000원), '화담재와 화담정' (박동선 한시집, 2013년 6월 도서출판 교음사 발행·값 20,000

원), '천왕봉' (박동선 칼럼집, 2013년 6월 도서출판 교음사 발행·값 20,000원)

박 실 회우= '중공군의 한국전쟁' (2013년 7월 27일 청미디어 발행·360면 값 17,000원)

##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 ▶ 주소·전화번호 변경 ◀

박연호=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호1차 푸르지오 아파트 105동 804호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안 납입연도)

구자건 회우(2013)

〈축〉大韓言論 창간 36주년

희망서울  
말이 된 서울, 생각 된 서울

서울특별시

"말이  
씨가 된다!"

서울을 바꾸는 천만의 생각  
2013 희망서울 정책박람회

9월 28일  
서울공광장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며 결정하는  
2013 희망서울 정책박람회에서 서울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시민이 시장입니다



행사일시 2013. 9. 28(토) 10:00~18:00

행사장소 서울시청·서울시의회·서울광장

행사내용 시민참여한마당, 정책 아이디어 마켓 / 시의회, 청년과 서울의 비전을 말하다,  
지역현안 토론회, '시민말씀대로' 정책이야기 한마당 / 희망서울 상상지도, 시민발명경진대회,  
시민발언대 / 2013 서울마을 이야기

참여방법 행사 당일 현장 참여 또는 온라인 사전 신청

※ 자세한 내용은 <http://ideaexpo.seoul.go.kr>, 120 다산콜센터 문의



2013  
희망서울 정책박람회

〈축〉大韓言論 창간 36주년

7년 연속 세계판매 1위  
★★★★★  
2006-2012년 디스플레이  
서치기준 세계TV 점유율 1위

삼성 UHD TV의 놀라운 화질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구상에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당신의 눈앞에 불러오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털 한올 한올에서 주름 하나하나까지

세상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풀HD보다 4배 더 디테일한  
UHD 화질의 자신감으로  
당신의 눈앞에 불러오다

\* 마운틴고릴라는 멸종위기 동물로 현재 600여 마리만 생존해 있습니다



모델 : 65/55F9000

Discover True Detail  
삼성 UHD TV  
Ultra High Definition 4K

Full HD보다 4배 더 선명한 초고해상도 UHD 화질  
일반 영상도 고화질로 보여주는 퀵드 디테일 엔진

미래 UHD 방송표준을 지원하는 에볼루션 키트  
완벽한 클린백 디자인을 완성하는 One Connect

(에볼루션 키트는 현재 예측가능한 UHD 연결방식, 방송, 블루레이 표준화 정책에 준해 지원 가능하며 별매임)

삼성전자 SAMSUNG